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연구

: 경기도 지역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윤 혜 원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연구

: 경기도 지역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민 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윤 혜 원

윤혜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서 정 은 (인)

부위원장 이 민 정 (인)

위 원 박 영 주 (인)

국문초록

고교학점제는 학점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은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음악교사 6명을 대상으로 FGI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목적은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교사 인식을 조사하여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는 데 있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제도 도입의 과도기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상의 여러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제도 및 선택 과목의 안내와 교사의 전문성 증진, 체계적인 학생 관리 방안 마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둘째, 음악 교과와 대학 입시 제도와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음악 교과의 성적을 대학 입시제도에 반영하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음악 감상과 비평>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재구성 방향과 이수 권장 및 가능 시기의 조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음악 단일 편성으로 시수를 부여하고 음악 선택 과목 안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원만한 협의를 위한 교사의 노력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의 사례 조사 및 교사 인식에 대한 교육 현장의 직접적인 경험이 담긴 연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2023년 단계적 도입과 2025년 전면 도입에 따른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

안에 대한 후속연구로 이어져 성공적으로 음악과의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고교학점제,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음악 선택 과목,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학 번 : 2021-29243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4
3. 연구의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1. 고교학점제 ····· 5
1)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 5
2)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 13
2.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 17
1) 음악과의 교과 ····· 17
2) 음악과의 평가 ····· 22
3) 고교학점제 관련 음악과의 선행연구 ····· 25

III. 연구 방법 ····· 33
1. 연구 대상 ····· 33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7
1) 연구 방법 ····· 37
2) 연구 도구 ····· 38
3) 자료 분석 ····· 42
3. 연구 절차 ····· 46

IV. 연구 결과 ····· 48
1.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분석 ····· 48
1) 교원 연수 프로그램 ····· 48
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55
3) 학교 특색 프로그램 ····· 64
2. 음악 교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분석 ····· 74
1) 수업 기획 ····· 74
2) 수업 진행 ····· 79
3) 수업 평가 ····· 92
4) 수업 지원 ····· 102
3.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 ····· 106
1) 교육과정 운영 ····· 106
2) 음악 선택 과목 ····· 113
3) 음악교사의 교수 역량 ····· 120
4) 교사의 업무 부담 ····· 124
5)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 ····· 125

V. 결론 및 제언 ····· 129

참고문헌 ····· 135
부록 ····· 140
Abstract ····· 147

표 목 차

[표 II-1] 제19대 대선 공약에서의 고교학점제 ····· 5
[표 II-2] OECD Education 2030에서 제시된 역량 ····· 10
[표 II-3] 변화된 일반계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 ····· 14
[표 II-4]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 ····· 15
[표 II-5] 음악 관련 과목구조의 개편 ····· 20
[표 II-6] 음악과의 각 교과 영역별 평가 방법 ····· 23
[표 II-7] 활성화 방안 탐색 관련 선행연구 ····· 25
[표 II-8] 교원 인식 조사 관련 선행연구 ····· 28
[표 II-9] 수업 지도 방안 개발 관련 선행연구 ····· 30
[표 III-1] 연구참여자의 제외 기준 ····· 34
[표 III-2] 연구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 35
[표 III-3] FGI 면담 질문지의 영역 구성 ····· 38
[표 III-4] FGI 면담 질문지의 세부 내용 ····· 39
[표 III-5] 반복적 비교분석법 절차에 따른 코딩 예시 자료 43
[표 III-6] 연구 절차 ····· 47
[표 IV-1] 2020년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이수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 49
[표 IV-2]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운영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56
[표 IV-3]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비교 ····· 57
[표 IV-4] 2022학년도 1학기에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운영된 공동교육과정 ····· 58
[표 IV-5] 연구참여자들이 음악 수업 기획과 관련하여 고려한 점 ····· 75

[표 Ⅳ-6] 연구참여자의 각 학교별 음악 관련 교육과정 편제표 ····· 79
[표 Ⅳ-7] 음악 수업에서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 82
[표 Ⅳ-8] 2020년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지도한 과목 ····· 84
[표 Ⅳ-9] 연구참여자들이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수업에서 사용한 악기 ····· 87
[표 Ⅳ-10] 학교 1의 세부 평가 내용 ····· 93
[표 Ⅳ-11] 학교 2의 세부 평가 내용 ····· 94
[표 Ⅳ-12] 학교 3의 세부 평가 내용 ····· 96
[표 Ⅳ-13] 학교 4의 세부 평가 내용 ····· 97
[표 Ⅳ-14] 음악 수업 학급 수의 적합성 ····· 108
[표 Ⅳ-15] 음악 수업 학급당 학생 수의 적합성 ····· 110
[표 Ⅳ-16] 연구참여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음악 선택 과목 ····· 117
[표 Ⅳ-17]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필요한 교수 역량의 변화 ····· 120
[표 Ⅳ-18] 음악과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 ····· 127

그 림 목 차

[그림 II-1] 2000-2070년의 학령인구 수 ····· 8
[그림 II-2]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 ····· 13
[그림 II-3]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 17
[그림 II-4] 음악과의 교과 편제 ····· 18
[그림 III-1]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 ····· 42
[그림 IV-1] 두드림캠프의 프로그램 유형 ····· 62
[그림 IV-2] 유네스코의 4대 핵심주제 ····· 65
[그림 IV-3]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 66
[그림 IV-4] STEAM 교수학습 준거 ····· 7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교육 현장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동일한 시・공간에서 획일화된 수업을 받는 환경으로부터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동영상 수업 등 점차적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상황들을 고려한 수업들이 고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은 교사의 일방향적인 주입식 교육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도록 변화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일환인 고교학점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공약집에서 등장하였으며, '학점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제도'이다. 즉,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일구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안에서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고안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상의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나 단체 및 기관과의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폭을 넓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과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단위제가 아닌 현재 대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점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수업 기획・진행・평가・지원에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21a).

그러나 현재 음악과의 고교학점제는 단위제 바탕의 기존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을,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기

존에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되던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음악이론> 등의 '전문교과 I'을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으로 편성하며 학교 유형의 구별 없이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5a).[1)]

고교학점제 관련하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에서 다음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적 성장을 돕는 평가를 실시하여 미래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가 방식을 갖추고자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1d). 즉, 성적에 따라 아이들을 줄세우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개별적인 성취 수준을 살펴보고, 교육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집중하여 미래 사회에 어울리는 평가제도 방식을 추구하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정해진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희망 진로에 따라 과목을 수강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개설하여 지원하는 점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1d). 즉,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꿈을 설계하도록 돕고, 이를 위해 학생들이 요구하는 과목을 학교 교육 내에서 교육하는 점을 볼 수 있다.

고교학점제의 교육적인 의의와 함께 여러 문제점들도 존재한다는 의견이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되고 있다. 김도훈(2020)은 과목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이 존재하며,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의미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변화된 교육환경을 받아들일 의지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윤옥한(2021)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 공간을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현재의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맞는 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완전하지 않으며, 수업을 지도할 선생님을 모시는 데에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학교와 지역마다 다른 조건이 결국 교육격차를 더 깊어지게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음악과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있어 대부분 활성화 방안 탐색으로 제시되며, 국악교육과 해외 사례 분석이라는 한정

1) 이후 논문 작성에 있어 일반적인 음악 개념 및 활동 내용과 구분하기 위하여 과목명을 '< >' 로 표시한다.

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교원 인식조사와 수업 지도 방안 개발 정도의 범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 선도 및 연구학교가 2018년 이후 지정・운영되었음에도 관련 선행연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례 조사 연구 자체가 미비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적인 범위에서 경기도는 고교학점제 관련 사례 조사에 많은 의의를 가지며, 우리나라 고등학교 전체 2375교 중 485교로 가장 고등학교 수가 많은 지역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1). 또한 음악과와 관련하여 '두드림캠프'과 '지역예술단체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공연' 등 다양한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된 고교학점제 관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단위에서 2022년에 경기도 내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의 전면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 연구하는 데 많은 의의가 있다(교육부, 2021c).

따라서 본 논문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교과적인 측면에서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교사 인식 조사를 통해 제도의 적합성과 보완사항을 파악하여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음악교사 6명을 대상으로 FGI 면담을 실시하고자 하며, 선행연구 및 문헌들과 함께 종합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첫째, 경기도 지역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음악 교과와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의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선도학교 운영을 경험한 음악교사의 고교학점제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중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음악교사 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모든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의견으로만 반영되며, 연구대상자의 지역과 학교와 수가 한정되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점이 있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제도상의 특성상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상의 차이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경험한 고교학점제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보완사항들을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단위제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학점제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이 예정됨에 따라 교과목 및 교육과정 운영상의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고교학점제

1) 고교학점제 도입 배경

고교학점제의 도입 배경에 있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 용어가 사용된 기록은 문재인 정부의 제19대 대선을 위한 정책공약집에서 볼 수 있다. 비전 2의 12대 공약 중 8번째 공약에서 민생・복지・교육에 대한 공약들을 다루었고, 국가의 교육적인 임무와 더불어 고교학점제를 통한 진로 연계 교육을 제시하는 부분을 <표 II-1>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제19대 대선 공약에서의 고교학점제(더불어민주당, 2017)

비전명	2. 더불어 성장하는 함께 하는 대한민국	
12대 공약 中	8) 민생, 복지, 교육 강국 대한민국	
	[메인약속]	[세부약속]
주제 21.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175. 고교학점제(DIY형 교육)로 진로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83. 복잡한 고교 체제 단순화
		784. 진로.적성 맞춤형 고교학점제(DIY형 교육) 추진
		785. 고교학점제 통해 벽 없는 학교 추진

관련 내용을 보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등 고등학교의 세부 유형을 통합시키고, 단위제 → 학점제로의 변화를 통해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진학에 따라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지원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서로 다른 유형의 학교 간 공동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공약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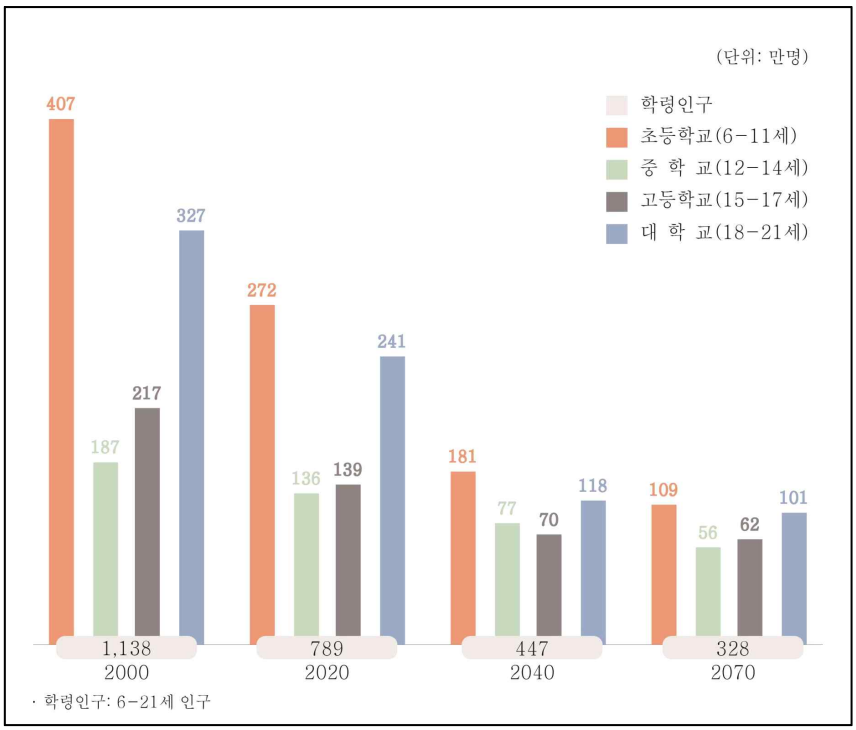
특히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는 차별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의 본격적인 도입은 1997년에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 해당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까지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으로, 2학년과 3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설정되었다. 관련하여 음악 교과에 있어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는 <음악>이 편성되었고,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어 일반 선택 과목에는 <음악과 생활>이 심화 선택 과목에는 <음악 이론>과 <음악 실기> 과목이 편성되었다(교육부, 1997). 이와 함께 단위 학교에 선택 과목의 운영권을 부여하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주도권을 주며,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출발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김도훈, 2020).

이후 2009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서 선택 교육과정으로 전환되었고, 학생들이 수업에 따라 교실을 이동하는 교과교실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교육과정 변화의 배경에는 더 이상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만족도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교과교실제가 시행되도록 수업 공간을 조성하고, 집중이수제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학교자율과정을 진행하고 선택 과목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설계하도록 돕고, 기초적인 학문의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충청북도교육청, 2009). 또한 음악 교과에 있어 선택 과목을 일반 과목과 심화 과목으로 구분하며, 일반 과목에는 <음악과 생활>과 <음악과 진로>를, 심화 과목에는 <음악 이론>과 <음악 전공 실기> 등 전공 심층 이론 및 실기 과목들이 편성되었다(교육부, 2011).

현재 적용되는 2015 교육과정에서는 선택 과목에 있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으며, 음악과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음악>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이 편성되었다. 또한 기초적인 학문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통과목을 먼저 이수하도록 하고, 이후 학교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 연계 수업들에 대한 운영을 안내하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희망 진로에 따라 과목을 이수하도록 안내하며, 과목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5a).

이와 함께 2021년에 고교학점제의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종합 추진 계획』(교육부, 2021d)을 발표하며 2017년에 이어 5개로 확대된 추진 배경을 제시하였다.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과 함께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를 반영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융합과 함께 오늘날의 교육에서는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직업 세계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의 전환 등 갑작스러운 수업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며 점차 우리의 교육은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자주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 스스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다(교육부, 2021d). 관련하여 이상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은 교사가 일방향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에 대한 발견과 변화를 이루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수업,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 등 미래 사회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이상오, 2021).

두 번째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개인의 신념, 경제적, 신체적, 사회·환경적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연결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통계청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2000-2070년의 학령인구 수(통계청, 2021)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경우 2000년대에 217만명에서 2020년에 139만명으로 감소되었고, 2040년에는 70만명, 2070년에는 62만명으로 점차 감소될 것이라 전망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생산 인력이 줄어드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며 국가 전체의 위기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따라서 일부의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국가를 위한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아갈 필요성을 주장하였다(교육부, 2021d).

세 번째로, 디지털 세대의 학습 성향에 변화가 나타난 점을 반영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교 현장에서는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들이 진행되며, 관련된 많은 수업 자료들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된 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단순히 글자만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통한 학습보다는 디지털상의 시각적・영상적 정보를 통한 학습을 추구하게 되었고, 단순히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처리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목적에 맞게 분류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변화된 학습 경향에 따라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그에 따른 학업 과정을 설계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교육부, 2021d). 관련하여 이명준은 디지털 세대 학습자들에게 있어 선택과 자유가 중요하며, 단순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 지식 활용 능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교육환경에 따른 배움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정보처리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이명준, 2010).

네 번째로, 사회적 불평등・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교육격차를 반영하였다. 현재,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는 단기간에 유의미한 성과를 보인 반면 사회적으로는 고용 불안과 소득 양극화 등 차별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모든 학생들의 최소 학업성취 수준을 보장하여 책임교육과 공정한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1d). 관련하여 안성호는 IMF 외환위기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음에도 사회 구조적으로는 개인 간, 기업 간, 고용 형태 간의 격차에 따른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노동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내실화를 갖추고, 평생교육을 장려하며, 4차 산업혁명에 변화된 기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안성호, 2018). 따라서 학교 교육안에서 진로와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이끌어내고,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

하며, 동일 선상에서 학생들이 진로·진학의 초석을 다듬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교육부, 2021d).

다섯 번째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인재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점을 반영하였다. 관련하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는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OECD Education 2030을 발표하였으며, '기초 소양(Foundational Literacies)', '기능, 태도 및 가치(Skills, Attitudes & Values Constructs)', '주요 핵심 개념(Key Concepts)', '변혁적 역량과 역량 개발(Transformative Competencies and Competency Development)', '복합 소양(Compound Competencies)'의 5개의 범주에서 역량을 제시하였고 해당 내용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OECD Education 2030에서 제시된 역량(박지현, 2019, 재인용 p.5-7)

<table>
<tr><th>OECD 역량</th><th>세부 역량</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7">기초 소양
(Foundational Literacies)</td><td>1) 문해력
(Literacy)</td><td rowspan="2">주요 핵심 개념
(Key Concepts)</td><td>15) 학생 주도성
(Student agency)</td></tr>
<tr><td>2) 수리력
(Numeracy)</td><td>16) 협력적 주도성
(Co-agency)</td></tr>
<tr><td>3) ICT/디지털 리터러시
(ICT/Digital)</td><td rowspan="5">변혁적 역량과 역량 개발
(Transformative Competencies and Competency Development)</td><td>17) 새로운 가치 창조
(Creating)</td></tr>
<tr><td>4)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td><td>18) 책임감 가지기
(Responsibility)</td></tr>
<tr><td>5) 체육/건강 리터러시
(Physical/ Health)</td><td>19) 긴장/딜레마 해소
(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td></tr>
</table>

기능, 태도 및 가치 (Skills, Attitudes & Values, Constructs)	6) 협동/협력 (Cooperation/ Collaboration)		20) 예측 (Anticipation)
	7) 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		21) 실행 (Action)
			22) 반성 (Reflection)
	8) 문제해결력 (Problem solving)	복합 소양 (Compound Competencies)	23) 글로벌 역량 (Global)
	9) 자기 관리 (Self-regulation)		24) 미디어 리터러시 (Media literacy)
	10) 공감 (Empathy)		25)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소양
	11) 존중 (Respect)		26) 컴퓨팅 사고력/ 프로그래밍/코딩
	12) 끈기/회복력 (Persistence/ Resilience)		27) 금융 소양 (Financial literacy)
	13) 신뢰(Trust)		
	14) 학습에 대한 학습 (Learning to learn)		28)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능력과 책임감을 갖추도록 지도해야 하며, 앞으로의 미래는 더욱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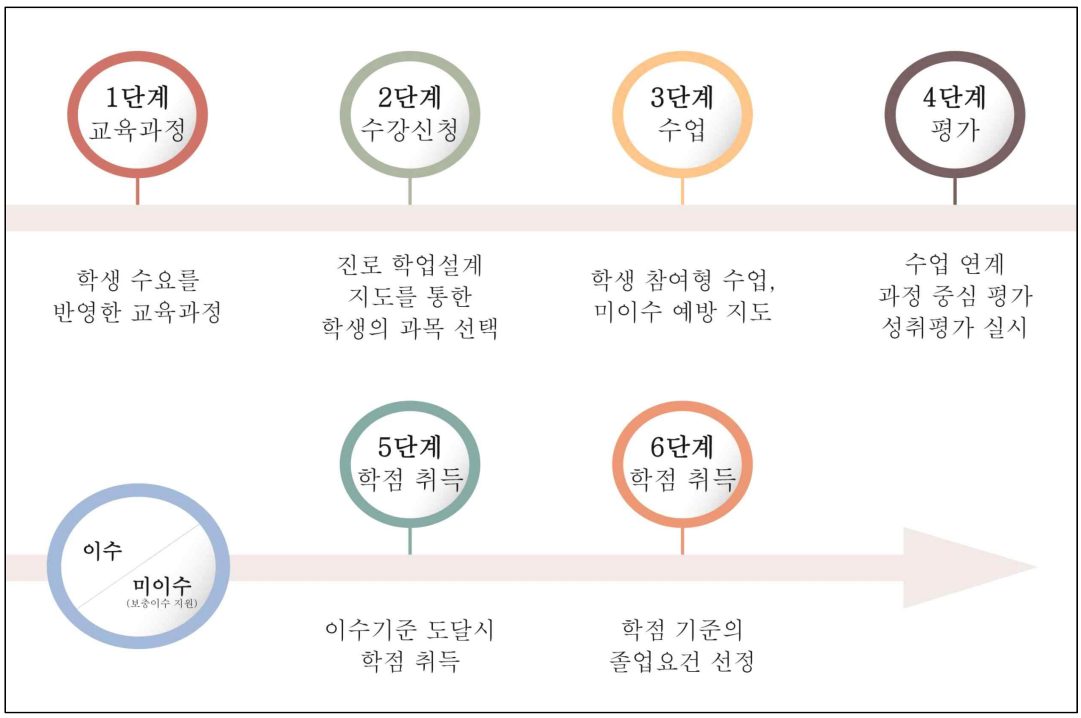
식과는 다르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하고 그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다(교육부, 2021d).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에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변경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교육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COVID-19의 영향으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개별적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나아가도록 이끌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교육부, 2021a). 그리하여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줄세우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얼마만큼 학업을 성취하였는지를 파악하는 성취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업 포기를 줄이고 학업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미이수제도를 도입하여 보충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선택 과목에서는 기존의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뿐만 아니라 융합 선택 과목이 신설되었으며,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교과목들이 편성되었다(교육부, 2022c).

이를 정리해보면, 고교학점제의 도입 배경을 살펴본 결과 본 제도가 주는 여러 교육적 의의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며 학교 교육 안에서 진로·진학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스스로 진로를 구상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부분에서 해당 제도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본인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는 학교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를 준비하는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으며, 결국 그것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이자 궁극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임을 알 수 있다.

2)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학점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 능력을 바탕으로 희망 진로·적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으로, 단순히 출석 일수로 학생들의 졸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준치의 누적 학점에 도달할 시 졸업을 인정받게 되는 제도(교육부, 2021d)이다. 고교학점제는 기존의 단위제에서 학점제로의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얻게 되고, 성취 정도에 따른 과목 이수를 통한 진정한 배움을 얻게 된다. 관련하여 교육부(2021d)는 [그림 II-2]와 같이 구체적인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림 II-2]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교육부, 2021d)

중점 사항을 보면, 우선 고교학점제는 수강 신청 기간 전 학생들이 희망하는 선택 과목에 대해 조사하며, 단계적으로 수강 신청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해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특징을 가진다.

관련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했을 때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김도훈(2020)은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는 것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선택 과목을 결정할 때 대학입시와 희망 진로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 설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학업을 설계하도록 돕고, 성취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과목마다의 이수 조건을 충족시켜 졸업을 위한 요건을 달성하며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학업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된다(2021d). 또한 학사 운영 체제도 변화가 나타나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를 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변화된 일반계 고등학교 학사 운영 체제(교육부, 2021c)

운영 시기 / 세부 항목	단계적 이행		전면 적용
	2022	2023-2024	2025-
수업량 기준	단위	학점	학점
1학점 수업량	50분 17(16+1)회	50분 17(16+1)회	50분 16회
총 이수학점 (이수 시간)	204단위 (2,890시간)	192학점 (2,720시간)	192학점 (2,560시간)
교과・창체 비중	교과 180 창체 24	교과 174 창체 18	교과 174 창체 18

우선 ‘수업량 기준’에서는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변화되는 부분이 제시되며 이에 따른 명칭과 교육과정 내용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또한 1학점 수업량으로는 2022‐2024년까지 50분 수업 기준 17(16+1)회로 동일하게 진행되었지만, 2025년 전면 적용됨에 따라 1회분의 수업량이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총 이수학점에서도 단위제가 학점제로 바뀌며 이수 시간과 함께 감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교과와 창체 비중에서도 기존 단위

제보다 더 적은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점제 변화에 따른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자 기존보다 축소되어 학사 체제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관련하여 고교학점제의 추진 경과를 보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고교학점제 추진 경과(교육부, 2021d)

<table>
<tr><th>연도(년)
세부 항목</th><th>2018</th><th>2019</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h>2025</th></tr>
<tr><td rowspan="5">고교학점제
추진 경과</td><td colspan="4">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td><td colspan="3">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td><td>학점제 본격 시행</td></tr>
<tr><td colspan="8">→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td></tr>
<tr><td></td><td></td><td colspan="6">→ 마이스터고 도입</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4">→ 특성화고 도입</td></tr>
<tr><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3">→ 일반계고 단계적 도입</td></tr>
</table>

이를 통해 2018-2021년에 제도 도입의 기본 토대를 갖추고, 2022-2024년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며, 2025년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연구・선도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에 1,457교로 확대되어 운영되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교육부, 2021d). 이와 관련하여 마이스터고는 2020년, 특성화고는 2022년에 학점제가 도입되었고,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2023년 고등학교 입학생들을 기준으로 순차 도입될 예정이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위한 준비가 확장되며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교육부, 2021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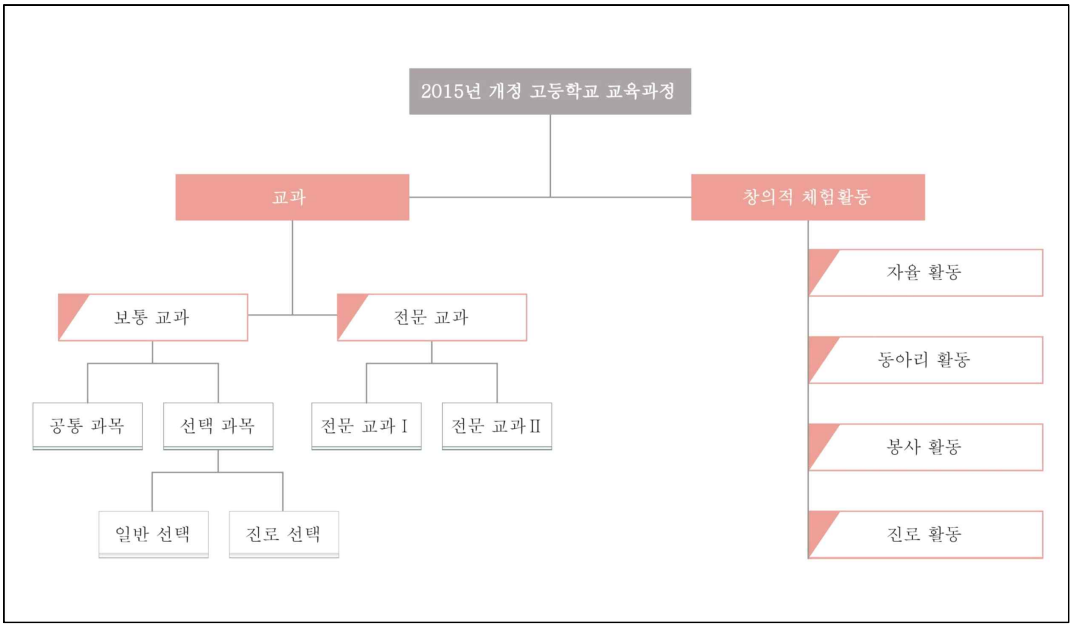
이를 정리해보면, 고교학점제의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 고교학점제의 추진 경과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운영 모형에 있어 현재 대학에서 제공하는 학점제의 시스템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돕고, 학습 성취에 따른 학점 이수를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되는 부분이 나타났다. 또한 학사 운영 체제의 변화에 있어 기존 단위제에서 학점제로 변화되며 수업량, 이수학점 및 시간, 교과·창체 비중의 모든 면에서 축소되어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의 추진 경과에 있어서는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도입을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2023년 단계적 도입과 함께 2025년 학점제로의 전면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실제 선도학교에서의 운영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이후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해당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2.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1) 음악과의 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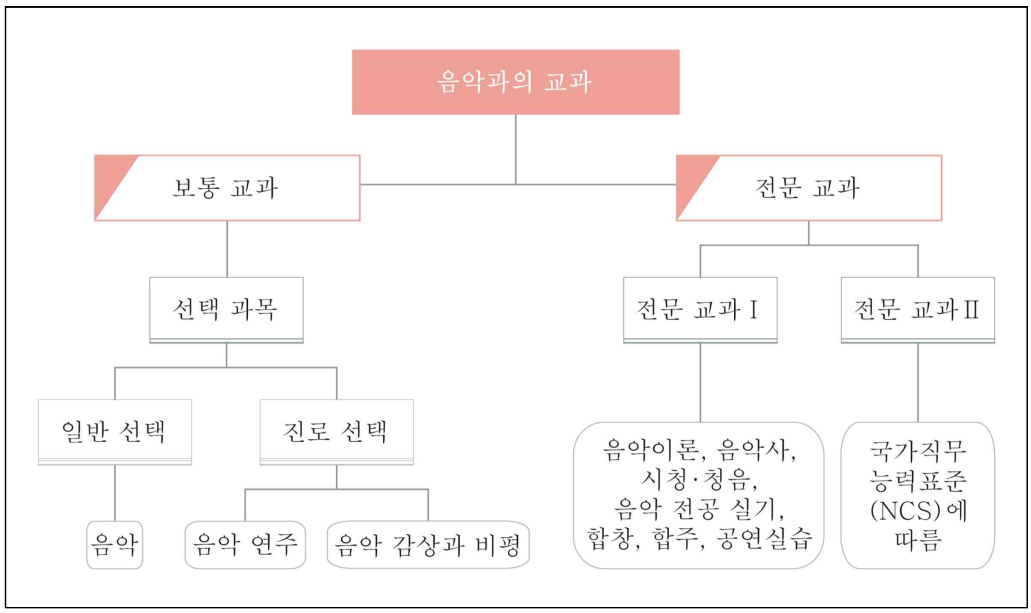
현재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음악 교과는 단위제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교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관련하여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를 보면 [그림 II-3]과 같다.



[그림 II-3]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22)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되며, 다시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동아리·봉사·진로 활동'으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그중 교과에 있어 보통 교과는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하는 '공통 과목'과 선택에 따라 이수 과목의 차이가 발생하는 '선택 과목'으로 구분되고, 선택 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고

등학생의 수준에서 각 과목별 기본적인 학문 지식을 이해하도록 편성되었으며, 수강을 위한 특정한 기준이 부여되지 않기에 모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학생들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진로와 관련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편성되었으며, 타 교과와의 연계 학습이나 진로 설계를 돕고, 해당 과목에 대한 심도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등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22). 이와 함께 '전문 교과'는 '전문 교과 I'과 '전문 교과 II'로 구분된다. '전문 교과 I'은 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서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으로 심층적인 전공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 운영되며 과학·체육·예술·외국어·국제 계열로 구분되고, '전문 교과 II'는 주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운영되며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을 두는 교육과정으로 전문 공통 과목,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되며 직업 세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교육부, 2015a). 관련하여 음악과의 교과 편제는 [그림 II-4]와 같이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II-4] 음악과의 교과 편제(교육부, 2015a)

우선 보통 교과에 있어 공통 과목 없이 선택 과목으로만 구성되며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이 편성・운영된다. <음악>의 경우 표현, 감상, 생활화로 영역이 제시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여 음악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하고, 음악성 및 창의성을 향상시키며, 음악이 가진 기능과 의의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 생활 속에서 음악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갖는다. <음악 연주>의 경우 연주와 비평으로 영역이 제시되며 여러 음악 연주 형태를 경험한다. 또한 악기를 연주하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소리의 어울림을 느끼고, 음악을 통해 독창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주를 감상하며 소통하도록 한다. <음악 감상과 비평>의 경우 감상과 비평으로 영역이 제시되며, 감상 활동을 통해 여러 시대, 지역, 장르의 음악들을 다채롭게 감상함으로써 음악이 주는 의미와 의의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비평 활동을 통해 음악적 가치 판단과 평가에 대해 배움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음악적으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음악적 감수성과 음악에 대한 견식을 넓힐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2022).

또한 '전문 교과'에 있어 예술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함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으로 예술 계열의 전문 교과 I을 편성・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심도있는 전공 지식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성과 창의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한다. 관련하여 세부적인 과목으로는 <음악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 <합주>, <공연실습>이 편성・운영된다(교육부, 2015a). 이와 함께 2022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과목구조의 개편이 나타났으며, 음악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을 보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음악 관련 과목구조의 개편(교육부, 2022c)

교과	교과(군)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보통 교과	예술	음악	음악 연주**와 창작**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디어**
	예술 계열		음악 이론, 음악사, 시창・청음, 음악 전공 실기, **합창・합주,** **음악 공연 실습**	**음악과 문화**

이를 통해 교과에 있어 기존 전문 교과 I의 과목들이 보통 교과 중 예술 계열로 편성되며, 선택 과목의 유형에 있어 기존에 제시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외에 '융합 선택'을 새롭게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변경된 과목을 보면, '진로 선택 과목' 중 예술군에서는 <음악 연주>가 <음악 연주와 창작>으로 변경되고, 예술 계열에서는 개별적인 과목으로 편성되었던 <합창>과 <합주>가 <합창・합주>로 통합되며, <공연 실습>을 <음악 공연 실습>으로 변경되어 개편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융합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예술군에는 <음악과 미디어>가, 예술 계열에는 <음악과 문화> 과목이 신설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현재 음악과의 교과는 기존의 단위제에서 사용되던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교과들을 그대로 편성・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해당 과목들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이론과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면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직업 세계를 위한 교육들에 머물러 있으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교육과정에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 만큼 음악과의 교과도 학점제도에 맞게 개편될 필요성이 있다. 관련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음악과의 교과를 개편하여 편성・운영하는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창작, 미디어, 문화 등 기존보다 넓은 범위에서 음악 관련 과목들

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주목받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새롭게 접목하여 개편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기에 음악 교과의 개편에 진보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2) 음악과의 평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음악과의 평가는 성취평가제로 진행되는데, 성취평가제란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을 통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에 따라 과목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0).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희망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만큼 성적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용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음악과의 성취도 평가의 종류에는 '실기 평가', '실음 평가', '일반 음악 지식 시험', '창작 평가'가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실기 평가'의 경우 채점자가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쉬우며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전에 채점에 대한 세부 영역을 설정하고, 각 세부 영역별로 평가에 대한 기준을 자세하게 나누며, 혼자서 채점하는 것이 아닌 다른 채점자와 함께 평가하고, 평가 대상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음 평가'의 경우 올바른 음악 평가를 위해 반드시 '소리'를 평가 요소로 포함해야 하며, 청음・감상・악보 관련 시험으로 구분된다. 청음 시험은 교사가 제시하는 연주를 듣고 음의 높낮이와 리듬을 구분하여 악보에 기보하는 시험이고, 감상 시험은 음악 감상을 통해 음악 내적・외적 정보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며, 악보 관련 시험은 제시된 악보와 관련하여 평가하는 모든 시험을 의미한다. '일반 음악 지식 시험'의 경우 음악과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대부분 지필고사를 통해 평가된다. '창작 평가'의 경우 듣고 쓰고 읽는 활동을 통한 총체적인 평가로 진행되며, 평가 영역을 세부적으로 설정할수록 학생들의 창작 능력을 더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민경훈 외 11명, 2019). 관련하여 음악과의 각 교과 영역별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은 <표 II-6>과 같다.

<표 II-6> 음악과의 각 교과 영역별 평가 방법(교육부, 2022b)

구분 (교과 유형)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일반 선택 과목	-	-	-	3단계 (A-B-C)	-	-
진로 선택 과목	○	○	-	3단계 (A-B-C)	○	-
전문 교과 I	○	○	○	5단계	○	○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 I 중 수강자수 13명 이하인 과목	○	○	○	3단계 (A-B-C)	○	‘ · ’ 또 는 ‘○등급’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 (공동교육과정)	○	○	○	3단계 (A-B-C)	○	-

우선 음악 교과의 성취도는 ‘전문 교과 I’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A-B-C 3단계로 구분되며, 성취도 기준에 대한 성취율(원점수)에 있어 80% 이상-100%일 경우는 A, 60% 이상-80% 미만일 경우는 B, 60% 미만일 경우는 C 등급을 받게 된다. 또한 ‘전문 교과 I’의 경우 A-B-C-D-E의 5단계로 구분되며, 90% 이상일 경우는 A, 80% 이상-90% 미만일 경우는 B, 70% 이상-80% 미만일 경우는 C, 60% 이상-70% 미만일 경우는 D, 60% 미만일 경우는 E등급을 받게 된다. 다만, 해당 전문 교과 I 기준은 성취도 3단계 평정 과목은 제외되며,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에 있어서도 성취도 3단계로 적용되는 부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소학업성취수준인 40%를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 한해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충과정을 지원한다. 각 교과별 세부 내용에 있어 보통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의

경우 점수 및 등수와 관련된 정보는 기재되지 않은 채 오로지 A-B-C 3단계의 성취도만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또한 보통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의 경우 A-B-C 3단계의 성취도가 반영되는 점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동일하지만 원점수와 과목 평균, 수강자의 수도 추가적으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또한 '전문 교과 I'과 '학교 간 통합 선택교과'는 학교 및 지역 단위에서 편성·운영되는 수업에 따라 <표 II-6>과 같이 진행된다(교육부, 2022b).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음악과의 평가에 있어 공정한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평가 방안이 구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편성·운영되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표준편차와 석차등급이 반영되지 않으며, 극히 일부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내신 성적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국어, 영어 등과 같은 교과들과는 다르게 합격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이 나타났다. 또한 정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음악과의 과목이 반영되지 않기에 음악 교과가 현재의 대학 입시에 많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3) 고교학점제 관련 음악과의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와 음악을 주제어로 설정하여 음악교육 관련 분야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공통 유형에 따라 논문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고, 논문의 발행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연구 저자의 논문일 경우 후속연구로써 함께 제언하며 선행된 연구의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그 결과 (1) 활성화 방안 탐색, (2) 교원 인식 조사, (3) 수업 지도 방안 개발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활성화 방안 탐색

활성화 방안 탐색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총 8편으로 <표 II-7>과 같다.

<표 II-7> 활성화 방안 탐색 관련 선행연구

유형	연구 저자	연도	논문명
국악 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정은정	2018	학교 예술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국악교육의 방향
		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악교육의 선택권 강화와 내실화 방안
	김아현	2019	국악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방향 탐색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탐색	박지현, 김지현	2021	고교학점제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선택 과목 구성 및 운영 방안
	이영미	2021	핀란드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핵심내용과 교과목의 특징이 한국 고교학점제에 주는 시사점
		2022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선택교과목 편제 국제 비교 연구 : 캐나다, 호주, 미국, 핀란드를 중심으로

	임은정	2021	고교학점제에 따른 지역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이수진 외	2022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선택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탐색

정은정(2018)은 교육부와 문체부의 선행연구 문헌들을 바탕으로 학교 예술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운영 현황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국악교육의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변화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언급하였고, 국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로와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며 학습자 중심의 국악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후속연구로써 정은정(2020)은 고교학점제의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이 국악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지도하며 과정 중심의 평가 등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김아현(2019)은 국악은 학생들이 체험하는 자연과 일상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진로교육을 실행하기에 효과적이라 주장하며, 국악 활동을 접목시켜 학교 현장에서 진로교육을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음악 교과서에서 제시된 진로교육과 연계된 내용에 대해 분석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에 따라 효과적인 진로교육에서의 국악 활동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중 고등학교 진로교육에서의 국악 활동 방안의 경우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학생들의 진학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활동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있어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와 관련하여 SWOT 분석법을 통해 분석된 국악 능력을 바탕으로 희망 진로를 알아보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악 분야의 직업들을 탐색해보고 새로운 국악 분야의 직업을 만들어보며, 관심있는 국악 관련 직업을 유사하게 경험해보고, 해당 직업에서의 어려움과 보완점을 고찰해보는 활동을 제

시하였다. 또한 실제 국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을 조사하며 학과 탐색 활동을 통한 진로 설계 활동을 제시하였다.

박지현과 김지현(2021)은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적인 도입에 앞서 음악과의 선택 과목에 대한 보완점을 제안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 우선 기록자료 연구 방법으로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포함한 국내와 미국, 캐나다 등 국외의 선행연구 문서들을 분석하였다. 이후 음악과의 선택 과목에 대한 음악교육관련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탐색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음악 선택 과목을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편안에 따른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선택 과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성하는 방안과, 음악적인 특성별/인문 진로계열별로 나누어 단계적인 진행을 고려해 구성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이영미(2021)는 핀란드의 2019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중심으로 학점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전에 사용되었던 2015 교육과정과 비교해보며 학점제로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상의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과목 선택권, 선택 과목의 구성, 진로・진학과의 연계 방안 등을 고려하여 학점제가 선행된 핀란드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고교학점제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속연구로써 이영미(2022)는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와 캐나다, 호주, 미국, 핀란드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에 기재된 음악과의 교과목 편성・운영을 비교・분석하였고,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에 의한 변화를 담고 있는 2022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안)을 비교하며 음악과의 선택 과목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주었다.

임은정(2021)은 지역 공동체와 협력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하며,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인한 교육과정상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독일의 시민음악학교와 미국의 하모니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 공동체와 연계된 음악교육에 대해 고찰해보며, 효과적인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방안을 탐색

하였다.

이수진 외(2022)의 연구에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른 음악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중 제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의 변화된 모습을 분석해보며, 캐나다와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에서 운영된 음악과의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운영 방안을 탐색하여 한국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활성화 방안 탐색 관련 선행연구들은 국내 고교학점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게 진행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은정(2018, 2020), 김아현(2019)은 국악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을 통해 제시하였고, 박지현, 김지현(2021)과 이영미(2021, 2022), 임은정(2021), 이수진 외(2022)의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부분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탐색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연구 방법에 있어 각 나라의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들을 포함한 문헌 분석으로 진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교원 인식 조사

교원 인식 조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총 2편으로 <표 II-8>과 같다.

<표 II-8> 교원 인식 조사 관련 선행연구

유형	연구 저자	연도	논문명
교원 인식 조사	곽나리	2022	고교학점제 음악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 : 일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최지혜	2022	음악비평 수업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곽나리(2022)는 현직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및 예비 음악교사 108명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와 음악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문제점을 파악하며 해결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음악과에서는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지혜(2022)는 음악비평 수업의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조사해 비평과 음악비평에 대해 정리하였고, 6명의 중등 음악교사들에게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음악비평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중등 음악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보완점을 파악하고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며 음악비평 수업의 시사점들을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교원 인식 조사 관련 선행연구에 있어 곽나리(2022)는 설문조사를 통해 고교학점제와 음악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최지혜(2022)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음악 비평 수업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의 대상에 있어서도 곽나리(2022)는 교원뿐만 아니라 예비 교원까지 대상을 확장시켰으며 다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최지혜(2022)는 중등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6명의 소수 연구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에서 연구의 방법, 내용, 대상 모두 다르게 진행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수업 지도 방안 개발

수업 지도 방안 개발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총 3편으로 <표 II-9>와 같다.

<표 II-9> 수업 지도 방안 개발 관련 선행연구

유형	연구 저자	연도	논문명
수업 지도 방안 개발	유진주	2021	고교학점제 「음악 이론」 수업방안 연구
	장수아	2022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고등학교 1학년 음악 진로수업 지도안
	한해수	2022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음악수업지도안 : 「다시 만난 세계」를 중심으로

유진주(2021)는 고교학점제를 경험하였고, 실용음악과로의 진학을 희망하며, <음악 이론>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일반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학년 구분 없이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음악 이론> 선택 과목의 수업 지도 방안을 고안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교육과정 문서 및 교과서 등 선행연구 문헌 및 관련 자료들을 통해 고교학점제, <음악 이론>, 대중음악에 대해 고찰하였고, 총 16차시 분량의 교과서에 제시된 한국의 대중음악을 제재곡으로 사용한 다양한 진로 연계 교육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장수아(2022)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와 대중음악을 비롯한 음반 산업과 진로 교육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고찰하였고, 관련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및 적성을 찾고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 교과에서 진로·직업에 대해 알아볼 수 있도록 관련 지도안을 고안하였다. 총 3차시로 진행되며 고등학교 1학년을 연구의 대상자로 설정하여 음반 산업과 연계된 진로교육을 제시하였다.

한해수(2022)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따라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음악수업에 대한 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개념 및 운영 현황과 2015 음악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하고, 대중음악이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생각과 요구사항을 설문조사하였다. 특히 대중음악에 대한 수업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

과에 따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제재곡으로 설정하여 2차시에 걸친 수업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수업 지도 방안 개발 관련 선행연구에 있어, 대중음악, 음반 산업 같이 보다 현대적인 음악 개념에서 수업 지도 방안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공통적으로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등의 선행연구 문헌 및 관련 자료들을 고찰한 부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해수(2022)는 수업 지도 방안 개발 이전에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업 대상의 범위에도 차이가 존재하며, 수업 차시에 있어 적게는 2차시, 많게는 16차시로 다르게 설정되어 지도안이 개발된 점에서 다르게 진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음악과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활성화 방안 탐색, 교원 인식 조사, 수업 지도 방안 개발과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하여 활성화 방안 탐색의 경우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고교학점제 활성화 방안에 시사점을 도출해내거나 국악교육이라는 한정된 범위를 위한 활성화 방안 탐색으로 진행된 부분을 알 수 있었다. 교원 인식 조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가 넓게 설정되며 단일 교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지도 방안 개발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고찰하고 고교학점제에 효과적인 음악 수업을 위한 지도안 개발이 진행된 부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선도 및 연구학교가 2018년 이후 지정·운영되었음에도 관련 선행연구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사례 조사 연구 자체가 미비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2023년 단계적 도입과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본 논문을 통해 연구 및 선도학교의 사례를 조사하여 구체적인 교육 현장에서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제도적인 측면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음악교사를 대상으로 교원 인식을 조사하며 제도적인 보완점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관련 선행연구가 미비한 만큼 이는 이후의 연구들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음악과

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음악교사 6명이며, 비확률적 표집방법 중 목적표집을 실시하여 모집하였다. 목적표집은 다수의 질적연구에서 사용되는 표집방법으로 인간 대상 연구에서도 빈번히 적용되며, 연구자가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집단·지역·사건을 조작하여 표집하는 방법이다(성태제 외, 2015).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 혹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모집 공고를 올려 섭외를 진행하였다. 이때 모집 문건에 '<표 III-1> 연구참여자의 제외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연구 참여에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을 기재하였으며, 연구참여자 본인이 참여자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표 III-1> 연구참여자의 제외 기준

연구참여자의 제외 기준
(※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연구 참여가 제한됩니다.) • 음악 과목을 지도하지 않는 교사 • 경기도 외의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 경기도 지역 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에서 근무한 교사 •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없는 교사 • 고교학점제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부임한 초임교사 •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교사 • 연구참여자용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교사

이후 지원자들에게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를 보내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취득하였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에 있어 근무 지역, 성별, 세부 전공, 학력, 교직 경력, 근무지 설립 구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해당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연구참여자의 기본적인 특성

학교	교사	근무 지역	성별	세부 전공	학력	교직 경력	근무지 설립 구분
1	A	광주・하남	여	성악	사범대학 졸업	15-20년	공립
	B	광주・하남	여	피아노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5-20년	공립
2	C	김포	남	음악교육	사범대학 졸업	5년 미만	공립
	D	김포	여	피아노	사범대학 졸업	5-10년	공립
3	E	수원	남	음악교육/ AI 융합교육	사범대학 졸업	10-15년	공립
4	F	성남	여	피아노/ 음악교육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5-10년	공립

또한 같은 학교 내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공통적으로 경험하며 공감하는 부분과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자 6명의 연구참여자 중 4명(2개의 학교)의 경우 근무지가 동일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면담내용과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정리한 연구참여자들이 속한 학교의 간략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학교 1은 신도시의 5년차 신설학교로 비평준화 학교이며 남녀공학이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2022년 5월 기준, 학교알리미)에 있어 대학 진학이 50.9%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 진학 36.2%, 기타 11.5%, 취업자 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 진학에 있어 정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높은 학교이다. 2020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되었으며, 음악 교과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가,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전공 실기>가 편성・운영되었다.

학교 2는 과학중점학교이며 김포시 비평준 고등학교 중 하위권에 속하는 학교로 남녀공학이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2022년 5월 기준, 학교알리미)에 있어 대학 진학이 47.1%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 진학 32.3%, 기타 19.6%, 취업자 0.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되었으며, 음악 교과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감상과 비평>이 편성・운영되었고,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에 있어 음악 관련 과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학교 3은 AI융합교육중점학교이자 미술중점학교로 남녀공학이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2022년 5월 기준, 학교알리미)에 있어 대학 진학이 55.4%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 진학 19%, 기타 25.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되었으며, 음악 교과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가 편성・운영되었으며,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전공 실기>, <음악 이론>이 편성되었지만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았다.

학교 4는 IT융합교과중점학교이자 예술드림거점학교로 과학중점학교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남녀공학이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2022년 5월 기준, 학교알리미)에 있어 대학 진학이 54.5%로 가장 많고, 전문대학 진학 6.2%, 기타 39.4%의 순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열로 학업 성적의 부분에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대학 진학에 있어 수시보다 정시의 비중이 높은 학교이다. 2018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운영되었으며, 음악 교과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음악 감상과 비평>이 편성・운영되었고,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에 있어 음악 관련 과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분석과 함께 FGI(Focus Group Interview) 면담을 실시하였다.

1) 연구 방법

면담에 필요한 모든 과정은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심의를 받아 연구의 윤리성 및 안정성을 인정받은 이후 진행하였다.[2] 이에 따라 진행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시작 일주일 정도 전에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시하며, 반구조화 면담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를 회신하여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연구에 대한 동의(녹음 포함)를 취득하였다. 동의 의사를 제공한 연구참여자들에 한해 이메일로 면담을 위한 일정을 함께 정하고, 면담에 사용할 Zoom 링크를 전송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얻게 된 이메일 주소 및 핸드폰 번호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이 종료된 후 바로 파기하였다. 면담의 방식은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Zoom을 통한 비대면 면담으로 진행되었으며, Zoom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였다. 또한 6명의 교사를 2명씩, 총 3그룹으로 나누어 연구자와 함께 각 그룹별로 2회씩(총 6회) 면담을 진행하였고, 1회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 연구자가 전사작업을 통해 익명처리하여 자료를 정리하였고, 연구자 외의 열람을 엄격하게 금하며 연구자의 암호가 걸려있는 컴퓨터에 보관하였으며, 관련하여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

2) IRB 승인번호: IRB No. 2211/001-006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에 있어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FGI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면담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문항 구성에 있어 근무 지역, 성별, 세부 전공, 학력, 교직 경력, 근무지 설립 구분, 학교 특성을 포함하는 기본 사항의 영역과 함께 경기도 지역과 음악 교과로 나누어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경기도 지역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하였으며, 음악 교과의 경우 수업 기획·진행·평가·지원과 교사의 인식을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관련하여 세부 항목들을 구성하였으며 <표 III-3>과 같다.

<표 III-3> FGI 면담 질문지의 영역 구성

영역	하위영역
기본 정보	근무 지역, 성별, 세부 전공, 학력, 교직 경력, 근무지 설립 구분, 학교 특성
1.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분석	1-1)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1-2)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1-3) 경기도 지역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
2. 음악 교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분석	2-1) 수업 기획
	2-2) 수업 진행
	2-3) 수업 평가
	2-4) 수업 지원
	2-5) 교사의 인식

질문지의 순서에 있어 지역적인 범위 → 단위 학교 → 음악 교과로 범위를 좁혀 정하였고, 일반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이후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마지막으로 배열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경우 학교마다 교육과정이나 학교 특색 프로그램 등 운영 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로 인해 교사마다 경험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들이 경험한 내용들 따라 심층적인 면담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면담'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지의 개발을 위해 본 면담이 이루어지기 전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 방문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여러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들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의 고교학점제 현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질문 내용들을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의 유형에 있어 '기본 정보', '프로그램의 구성'. '진로・진학 지도'. '평가', '지원', '인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항목별 질문 내용과 문항 번호, 문항 수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FGI 면담 질문지의 세부 내용

질문 유형	질문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① - ⑤	5
	소속 학교 관련 특성	⑥, ⑦	2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구성	1-1-1, 1-2-1, 1-3-1, 1-3-2, 2-2-2-1, 2-2-2-2, 2-3-1-1, 2-3-1-2, 2-4-1-1	9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2-1	1
	안내 및 홍보	2-1-2, 세부 면담(1-2, 1-3)	3
	학생 수요	2-1-3, 2-5-1-2, 세부 면담(1-2, 2-2-2)	4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	세부 면담(1-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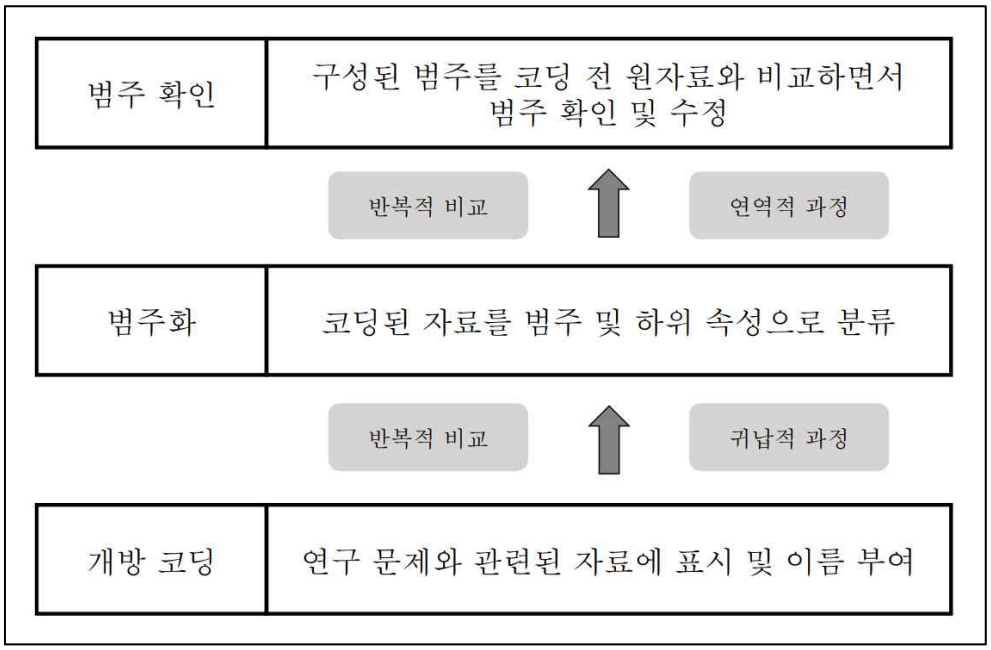
	학생들의 선호 프로그램	세부 면담(1-3, 2-2-2)	2
	가장 고려한 점	2-1-1, 세부 면담(2-2-2, 2-3-1)	2
	노하우	2-1-4, 2-2-3, 2-3-3,	3
	교수역량	2-5-2-2, 2-5-2-3	2
	소통상의 문제	세부 면담(1-2)	1
	추가 희망 프로그램	2-5-2-2, 세부 면담(1-1, 1-2, 1-3),	4
진로・진학 지도	진로 연계	2-5-2-2, 세부 면담(1-2, 1-3, 2-2-2, 2-3-1),	5
	진학 연계	2-5-2-2, 세부 면담(1-2, 1-3, 2-2-2, 2-3-1)	5
평가	평가 방식	세부 면담(1-2, 2-3-1)	2
	공정성	2-5-3-1	1
	이수 / 미이수 관련	세부 면담(2-3-1)	1
지원	강사 채용 방식	세부 면담(2-4-1)	1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	2-4-3, 2-4-4, 세부 면담(2-4-1)	3
인식	만족도	세부 면담(1-1, 1-3, 2-2-2)	3
	장점	세부 면담(1-1, 1-2, 1-3, 2-2-2)	4
	문제점	세부 면담(1-1, 1-2, 1-3, 2-2-2, 2-3-1, 2-4-1)	6
	어려움	2-1-5, 2-2-4, 2-3-4, 2-5-3-1	4
	내용 이해	2-5-1-1, 세부 면담(1-1, 1-2, 1-3)	4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의 변화	2-5-2-2	1

	보완사항	2-5-1-3, 2-5-2-4, 2-5-3-3, 2-5-4-1, 2-5-4-2, 2-5-4-3, 2-5-5-3	7
	적합성	2-5-2-1, 2-5-2-2, 2-5-3-1, 2-5-3-2, 세부 면담(1-1, 1-3)	6
	교사 인식 (긍정/부정)	2-5-2-2, 2-5-5-2	2
	교사의 업무 부담	2-5-5-1	1

또한 현직 음악교사 2명과 음악교육전문가 2명의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연구 도구의 문항 타당도를 검증받았으며, 연구에 사용된 면담 질문지는 [부록]으로 제시되었다.

3) 자료 분석

6명의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녹음 자료는 총 9시간 4분의 분량이며, 녹음 전사 자료는 A4용지 기준 총 127매이다. 해당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분석의 절차는 [그림 III-1]과 같이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III-1]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절차(유기웅 외, 2018)

'개방 코딩'은 자료를 보고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명시하거나 분류하는 작업으로, 연구자의 경우 전사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keyword를 추출함으로써 개방 코딩을 진행하였다. '범주화'는 개방 코딩의 자료들을 수합하여 유사한 내용을 공통 범주로 묶어 이름을 선정해 분류하는 작업으로, 연구자의 경우 개방 코딩에서 추출한 key word의 주체와 내용 및 질문 유형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범주화의 이름을 선정해 분류하였다. '범주 확인'은 개방 코딩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원

자료와 비교하여 범주의 구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작업으로, 연구자의 경우 해당 범주가 연구 문제 및 내용을 잘 반영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논문의 작성에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2차 범주화를 통해 범주 확인을 진행하였다.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연구자는 전사한 녹음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분류하였고, 해당 절차에 따라 코딩한 예시 자료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반복적 비교분석법 절차에 따른 코딩 예시 자료

질문	•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 연구 참여자	면담 전사 자료(원자료)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B교사	내용 구성은 저는 사실 그때 들을 때 이게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개괄**을 쭉 들은 거였거든요. 되게 그런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는 게 **큰 그림**을 좀 보여줄 수 있었고.	- **내용구성은 적절함** - **내용이해의 변화** **① 초기상태** : 고교학점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② 과정** : 전반적인 개괄을 들음 **③ 결과** :큰 그림을 보여줌. (개괄적인 이해에 도움을 얻음)	**1) 내용구성** **2) 내용이해**	**1) 내용 구성** - 적절함 **2) 내용 이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부족 → 교육과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짐 ☞ 긍정적인 교육적 변화

F교사	너무나 **재미없고** 너무나 **딱딱하고** 너무나 **현장과 동떨어진** 교과서 같은 고교학점제 이해 막 이런 거여가지고, **음악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래서 딱히 이 프로그램은 **만족도는 되게 별로**였고. 특히 고교학점제에 관련해서 **음악 교과에 초점을 둔 연수**를 누군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 만족도가 별로 → 재미없고 딱딱함 & 현장과 동떨어진 교과서 같은 내용 - 음악과에 일절 도움이 안됨. -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음악 교과에 초점을 둔 연수 필요	1) 내용구성 3) 보완사항	1) 내용 구성 → 적절하지 않음 - 흥미도 ↓ - 교육현장에 대한 반영 필요 - 음악 교과와의 연계성 부족 3) 보완사항 - 흥미도 ↑ - 교육 현장 상황을 반영 - 전공(음악)과 연계된 고교학점제 연수의 필요성

또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질적연구 분석 방법인 Creswell(2007)의 나선형 자료분석(data analysis spiral)을 적용하였다. 이는 질적자료가 서로 긴밀한 관련성을 주고 받으며 동일한 시간 속에서 분석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하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단계가 유기적이며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분석 방법이다(Creswell, 2007; 박하영 외, 2022, 재인용 p.6). 이에 따른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FGI 면담을 통해 얻은 녹음자료를 반복적으로 청취하며 해당 내용을 전사하며 알파벳 부호화(ex. A교사)를 통해 익명 처리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해당 과정에서 얻어진 연구 자료들을 분류하고 코딩 작업을 거쳐 범주화하며, 이후 선행연구 자료들이나 관련 문헌들을 해석하고 면담자료와 연계시키고, 해당 자료들을 정리하고 도식화하는 방안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Creswell의 삼각검증법을 활용하여

면담자료, 관련 문서 자료, 관찰, 동료 연구자들 및 연구자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비교하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박하영 외, 2022).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준비, 설계, 실행, 분석, 정리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준비 단계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기간으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이후 해당 내용을 정리하고 논문의 서론 및 이론적 배경으로 작성하며 연구 진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설계 단계는 IRB 심의 완료 이후인 2022년 10월부터 2022년 11월 첫째 주까지의 기간으로, 경기도 지역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각 학교 홈페이지 및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섭외를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준비 단계에서 분석한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바탕으로 FGI 면담을 위한 반구조화 면담 질문지를 연구 도구로써 개발하였고, 현직 음악교사 2명과 음악교육전문가 2명의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연구 도구의 문항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IRB 심의를 받아 연구의 윤리성 및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실행 단계는 설계 단계가 완료된 이후부터 11월 둘째 주까지의 기간으로, 설계 단계에서 모집한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 1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 6명을 대상으로 FGI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이 종료된 후에는 FGI 면담 자료를 정리하며, 관련하여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단계는 실행 단계가 완료된 이후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실행 단계에서의 FGI 면담 결과와 함께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들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정리를 진행하였다.

정리 단계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의 기간으로, 선행 단계들을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 부분을 작성하고,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쳐 논문의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III-6>의 내용과 같다.

<표 III-6> 연구 절차

구분	기간	연구 절차
[1단계] 준비	2022. 03 - 2022. 09	1. 연구 주제 선정
		2. 고교학점제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분석
		3. 서론 및 이론적 배경 작성
[2단계] 설계	2022. 10 - 2022. 11	4. 연구 대상 선정 및 섭외
		5. 연구 도구(FGI 면담지) 개발
		6. 연구 도구의 문항 타당도 검증
		7. IRB 심의
[3단계] 실행	2022. 11	8. FGI 면담 실시
		9. FGI 면담 자료 정리
		10. 통계 처리 및 자료 분석
[4단계] 분석	2022. 11 - 2022. 12	11. 연구결과 해석 및 정리
[5단계] 정리	2022. 12 - 2023. 01	12. 결론 및 제언 작성
		13. 논문 수정 및 보완

IV. 연구 결과

1.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분석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를 분석하고자 면담의 세부 영역을 1) 교원 연수 프로그램, 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3) 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를 선행연구 및 문헌들과 함께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원 연수 프로그램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직무연수'로 진행되며, 직무연수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주는 연수이다. 교과에서의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및 정보화나 교양 및 취미 등 자기 계발 등 다양한 직무에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으며, 각 시·도 교육연수원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원격교육연수원, 그리고 전국 단위의 종합교육연수원 등 다양한 기관들을 통해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정성희, 2017).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이수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표 VI-1>과 같다.

<표 Ⅳ-1> 2020년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이수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연구 참여자	연수 유형(주제)	연수 이름	기관	연수 연도
A교사	① 교육과정 제도 전반의 이해에 관한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고교학점제 연수	학교 1	2021, 2022
B교사	① 교육과정 제도 전반의 이해에 관한 연수	전문적 학습공동체 고교학점제 연수	학교 1	2021, 2022
		고교학점제 보고회 연수	경기도교육청	2021
	② 진로・진학에 관한 연수	2022 대입 지원 전략! 수박 먹고 대학 간다(이해편)	티처빌	2020, 2022
		대학진학지도 꿀팁! 학생부종합전형, 생기부, 자소서 완전 정복	한국교원 연수원	2020
		고교학점제 관련 진로 및 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 원격직무연수	한국교육학술 정보원	2021
C교사	※전달 연수 ・ 각 학교 교육과정부장교사의 전달 연수로 진행됨 ・ 연수물 대체			
D교사				
E교사				
F교사	① 교육과정 제도 전반의 이해에 관한 연수	고교학점제의 이해 및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경기도 교육연수원	2021

면담 결과 6명의 연구참여자들 중 A·B·F교사는 고교학점제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하였지만, 나머지 C·D·E교사는 직접적인 이수 항목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유형에 있어 이수한 3명의 교사 모두 교육과정 제도 전반의 이해에 관한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B교사는 진로·진학에 관한 연수들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수하지 않은 3명의 교사 모두 각 학교 교육과정부 부장교사가 제공한 연수물을 통해 전달 연수로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수를 경험한 교사가 적은 문제점과 함께 이수한 유형에서도 한정적인 범위에서 직무연수가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분석에 있어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내용 구성의 적절성, (2) 이해도, (3) 만족도, (4) 장점, (5) 문제점, (6) 추가적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그 결과 A교사와 B교사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F교사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용 구성의 적절성

해당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이 이수한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의 면에서 만족하는 부분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 조사하여 보완사항을 탐색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A교사와 B교사는 적절하였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F교사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절하였다는 의견에 있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만,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과정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있어 교육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전공인 음악 교과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이해도

해당 질문은 교사들에게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연수가 제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난이도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알아보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연수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는 연수에 대한 만족도와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무연수의 이해도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해당 연수의 성패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A교사와 B교사는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이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F교사는 겉핥기 수준으로만 제시되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절하였다는 의견에 있어 학생들에게 안내 가능하도록 세부적인 주제로 나누어 구조화된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있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하여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3) 만족도

해당 질문은 교사들이 이수한 연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의의가 있다.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연수의 경우 이후의 연수들을 증설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며, 혹 만족도가 낮은 연수의 경우 어떠한 요인이 만족도의 저하를 가져왔는지를 파악하여 보완사항을 제안하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A교사와 B교사는 높은 만족도를 갖는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F교사는 낮은 만족도를 갖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A교사와 B교사는 이수한 연수 프로그램에 모두 만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F교사는 기존에 언론을 통해 제시되었던 내용과 별다른 내용상의 차이가 없었던 부분에서 낮은 만족도를 갖는다고 답변하였다.

(4) 장점

해당 질문은 교사들로 하여금 이수한 연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이후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장점은 만족도나 다른 문제들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이 이후의 연수 진행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는 부분이다. 관련하여 연구참여자 중 B교사만이 이수한 연수프로그램의 장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였으며, 발표자의 강의력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5) 문제점

해당 질문은 교사들이 연수에서 경험한 문제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여 제도적 개선에 도움을 얻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B교사는 부차적인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과 그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을 제시하였고, F교사는 앞서 '(1) 내용 구성의 적절성'과 '(3) 만족도'에서 제시한 부분과 동일하게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과 음악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6) 추가적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

해당 질문은 연구참여자들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 재직하며 추가적으로 연수받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이후의 연수 프로그램 개발의 성공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면담 결과 B교사는 고교학점제가 지역별로 학급 당 학생수 등의 차이에 따라 수업 내용 및 선택 사항의 변화가 이루어져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기에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한 지역별 맞춤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F교사는 각 과목별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수를 희망하며, 세부적으로는 음악교사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안내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악기의 수나 공간적인 문제 등의 학교 환경이나 음악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수업이 운영되는 음악 교과의 특성이 반영된 의견이다. 따라서 학교 상황을 고려한 음악 수업을 진행하고자 기존의 교육과정이 아닌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교육과정, 교과이름 등을 변형하여 운영하기를 희망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알기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여 포기했던 경험이 있기에 추가 희망 프로그램으로 제안되었다. 또한 F교사는 음악교사이면서 담임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 진로 및 대학 진학과 관련된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및 진학에 따라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관련 연수를 통해 진로 및 진학 설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E교사는 이미 기존의 연수들만으로도 충분하며, 다만 반드시 연수를 들어야 할 경우 교육과정 제도 전반의 이해에 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국 교사 스스로 고교학점제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따를 수 있으며, 제도적인 이해가 선행된 후 사례 제시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1)-(6)의 세부 질문들을 통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이 의무교육이 아니며 교사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연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제도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며, 고교학점제가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교육적 변화를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적어도 교육과정 제도 전반의 이해에 관한 연수와 같은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과 함께 보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연수들이 운영되기를 바라며 구체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더 좁은 범위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구성될 필요성이 보여졌다.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지역과 학교, 그리고 음악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부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지역 맞춤형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학교의 상황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향에 대한 안내를 제시하며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음악 교과 관련 연수가 증설되어 음악교사들이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희망하는 음악 수업을 진행하며, 고교학점제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고교학점제는 단순히 하나의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더 넓은 범위인 지역사회에서 다른 학교나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 학습을 추구한다. 또한 단순히 고등학교라는 학교급의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 초·중학교나 대학과의 연계 학습을 확대하여 보다 전문적이며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로 지원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교육부, 2021c). 더불어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자율시간'을 새롭게 운영하여 해당 시간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폭넓은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교사로 하여금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 및 학교 간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a). 이와 같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만큼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많은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음악과 관련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며,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운영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본 내용은 <표 IV-2>와 같다.

<표 IV-2>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운영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근무 지역	학교	교사	프로그램 유형
광주・하남	1	A	(1) 공동교육과정 (2) 지역 단체 연계 프로그램
		B	
김포	2	C	(1) 공동교육과정 (3)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D	
수원	3	E	(1) 공동교육과정 (3)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성남	4	F	(1) 공동교육과정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운영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유형으로는 (1) 공동교육과정, (2) 지역 단체 연계 프로그램, (3)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부록]으로 제시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질문지의 세부 문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은 서로 다른 학교 간에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편성・운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기회를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운영 방식에 있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함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지원한다. 관련 홈페이지[3]에서 제시된 두 운영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은 <표 IV-3>과 같다.

3) 경기고교학점제. https://more.goe.go.kr/hagjeomje/index.do. [2022. 11. 29 접속].

<표 IV-3>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비교(경기고교학점제, n.d.)

운영 방식 / 세부 항목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과목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교과 Ⅰ, Ⅱ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보통교과 교양교과군 일반 선택 과목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 전문교과 Ⅰ, Ⅱ
수업 장소	거점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강좌당 수강인원	13-25명 (과목 특성에 따라 변동 가능)	15명 이하
평가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른 과정 중심 평가 운영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교과학습발달 상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상황 기록	
특징	정규 교육과정이므로 중도 포기 불가	

개설 과목에 있어 두 교육과정 모두 2015 개정교육과정의 보통교과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I, II가 개설되는 점은 동일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보통교과 교양교과군 일반선택 과목이 추가적으로 개설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수업 장소에 있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운영의 주체가 되는 거점교에서 정한 장소에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반면, 온라인 교육과정은 Zoom 등의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쌍방형 원격수업으로 진행된다. 강좌당 수강인원에 있어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은 과목에 따라 변동되지만 일반적으로 13-25명의 학생들로 진행되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은 15명 이하의 학생들로 진행된다. 평가와 기록은 동일하게 운영되며, 평가는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과정중심평가로, 기록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교과학습발달 상황이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

동 상황 기록으로 반영된다. 또한 두 공동교육과정 모두 일반적으로 단일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학점으로 인정되는 정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둘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관련하여 경기도 지역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에 있어, 각 학교의 교육과정 문서와 경기고교학점제 홈페이지를 통해 2022학년도 1학기에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운영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정리한 내용은 <표 IV-4>와 같다.

<표 IV-4> 2022학년도 1학기에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운영된 공동교육과정

근무 지역	학교	교과(군)	과목명	운영 방식
광주・하남	1	예술	영상 제작의 이해	오프라인
김포	2	교양	심리학	온라인
			교육학	
			보건	
		국제 계열	국제경제	
		외국어 계열	스페인어회화 I	
		과학 계열	심화 수학 I	
			정보과학	
		수학 계열	인공지능수학	
수원	3	국제 계열	국제 경제	온라인
		기술・가정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오프라인
		과학 계열	융합과학 탐구	
		과학	고급생명과학	
		정보・통신	시스템 프로그래밍	
성남	4	교양	보건간호	오프라인
		기술・가정	로봇소프트웨어개발	
		실무 과목	전자부품기구개발	
		과학	고급생명과학	온라인
			고급화학	오프라인
			생명과학실험	

조사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는 음악 교과와 관련된 공동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이 속한 광주・하남, 김포, 수원, 성남 지역에서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음악 관련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으며, 2022학년도 1학기에 경기도 지역에서 운영된 총 492개의 공동교육과정 과목 중 음악 관련 과목은 광명 지역에서 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된 <공연실습>과 <무용음악실습> 단 2개의 과목만 존재하였기에 보다 음악과 관련하여 편성・운영된 과목의 수 자체가 적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관련하여 추가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지역에서는 음악과 관련하여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이 단 한 번도 개설된 적이 없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동교육과정의 경우 음악교사가 자체적으로 신청하여 운영될 수 있는 만큼 음악교사들이 음악 관련 공동교육과정 과목의 개설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의견은 '추가 수업 운영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다. 관련하여 B교사는 재직중인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이 미술과 음악 선택과목 중 음악 과목을 많이 선택하여 주어진 수업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체력적으로도 시수에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음악 교과의 특성과 관련하여 온라인에서 음악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A교사는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우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는 음악교사들이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F교사는 '진로・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같은 선택 교과로 개설되는 미술의 경우에는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음악의 경우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없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술 같은 경우는 미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공부를 좀 잘 못하는데 명문대를 가고 싶어 하면 학교 4에도 미대 가겠다는 애들은 많아요. 심지어 미대는 요새는 실기를 안 본*

다고 하더라고요. (중략) 미대는 그래도 미대 입시나 이런 것들이 먹히는데, 음악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 이런 게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생활기록부에 그 한 줄이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음악을 전공하는 애들이 없다 보니까, 음악 전공할 실력 있는 애들은 인문계에 없죠. 이미 다 예고에 가 있고 애네들은 실기로 승부를 봐야 되는 애들이니까. 이런 공동교육과정에서의 음악이 사실 활발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F교사)

그러나 면담 결과 2023학년도에는 음악과 관련하여 새로운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개설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다. 관련하여 E교사는 근무 지역인 수원 지역에서 <음악과 융합>이라는 과목으로 지역 경제와 관련된 음악 수업을 직접 시범 운영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F교사의 경우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근무 지역인 성남 지역에서 2023학년도에 <실용음악> 과목이 개설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음악과 관련하여 공동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된 과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개설 역시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관련하여 음악교사들은 이미 기존의 업무량만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음악 교과의 특성과 관련하여 음악 수업이 실음을 중심으로 진행되기에 온라인으로 수업할 경우 수업의 질이나 악기 등 수업 도구의 문제점과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어 온라인으로 음악 관련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미술과는 음악의 경우 다르게 이미 어린 나이에 전공이 결정되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음악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적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음악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입시에 크게 도움되지 않기에 희망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면담 결과 2023학년도에는 여러 지역에서 음악 관련 공동교육과정 과목이 새롭게 개설될 예정이라는 음악과의 공동교육과정의 변화도 함께 볼 수 있었다.

(2) 지역 단체 연계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의 학교 중 음악 관련 지역 단체 연계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교는 학교 1이며, 관련하여 지역 예술 단체의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 1이 속한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지원된 프로그램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예술공연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도록 하고, 문화 소외 지역의 예술적 경험을 확대하며, 지역예술단체와 학교 간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로 지역 예술단체가 찾아가는 만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중 5개의 학교만이 한정적으로 지역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 동안 접수한 학교들 중 위치 및 규모 등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해당 학교에서는 현악 사중주로 구성된 예술 단체가 직접 방문하여 3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40분 동안 공연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의 라이브 연주와 함께 악기와 연주곡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다. 관련하여 연구참여자가 인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모든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음악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보인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음악을 제공하였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설명이 제공되었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 감상을 통해 음악적 경험의 확대를 제공해준 점에서 교육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연구참여자들의 학교 중 지역 단체 연계 프로그램을 경험한 학교는 학교 2와 학교 3이다. 그러나 학교 3의 경우 ‘AI 융합교육 중점학교’로 음악과는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 진행되

었기에 학교 2에서 운영된 '두드림캠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두드림캠프는 학교 2의 1학년부에서 진행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지역 대학 교수가 학교에 방문하여 학생들의 희망 전공에 따라 진행한 맞춤형 진로 연계 프로그램이다. 학교 2에서 두드림캠프와 관련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의 유형은 [그림 IV-1]과 같다.

1	이색학과 특강 및 전공체험활동	2	전공학과 교수 특강	3	공공정책 캠프	4	경영캠프
5	미디어기술 및 영상분석 캠프	6	교육캠프	7	생명과학캠프	8	공학캠프
9	항공캠프	10	보건의료캠프	11	전공주제발표	12	자율탐구프로젝트

[그림 IV-1] 두드림캠프의 프로그램 유형

음악과 관련하여 '이색학과 특강 및 전공체험활동'에서 전문대학의 다양한 이색학과 중 공연예술학교의 교수 특강이 진행되었으며 관련 전공체험 활동의 기회가 주어진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공주제발표'를 통해 교수특강 및 전공체험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로 하여금 관심 전공주제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자율탐구프로젝트'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전공 주제 탐색 활동이 이루어지며 희망 진로 및 진학을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되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에 있어 학생들에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사 정보 등을 포스터를 통해 안내하였으며, 3월 학기 초부터 1학년 부장교사가 조회시간이나 방송을 통해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이 두드림캠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희망 진로 진학과 관련하여 정규 학교 교육과정 외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의 수업을 통해 전문성있는

교육을 받으며 진로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학생들은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되는 생활기록부의 자율 활동 특기사항 및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대한 작성을 내실화하여 진로·진학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부분과 강의식 설명식 수업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정리해보면, 두드림캠프는 전반적으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의 희망 진로·진학 연계 수업이 지향되는 만큼 관련 활동들로 구성되며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도입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강의 방식에 있어 설명식의 수업이 학생들에게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수업의 과정 속에서 학생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직접적인 진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보여졌다. 또한 공동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과목들이 개설된 것에 반해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의 수가 현저히 적게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하였기에 관련 프로그램의 증설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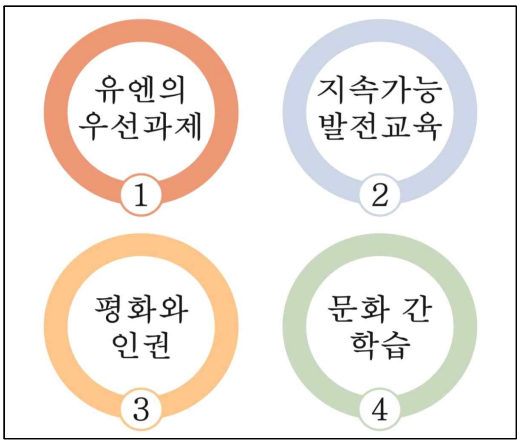
3) 학교 특색 프로그램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고 교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한 프로그램으로 학교마다 다르게 운영되며, 정규 수업시간 외에 별도로 진행되어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화된 학습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진로를 설계해 나아가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부분에 대한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음악'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운영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 고교학점제의 선도학교로 선정된 이후 학교 특색 프로그램에 있어 '16+1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하 16+1 자율교육과정)'이 공통적으로 운영된 부분을 확인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학교교육에서는 단위제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때 1단위는 50분의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17회(16+1) 이수한 수업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17회의 수업 중 1회에 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단일 교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 다른 교과들이 융합적으로 진행되는 수업뿐만 아니라 동아리 관련 수업, 보충 수업 등 각 학교마다의 특성을 고려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2022). 또한 면담을 통해 기본적인 학교 특성에 있어 과학중점학교, AI융합교육중점학교, 미술중점학교, IT융합교과중점학교, 예술드림거점학교와 같이 각 학교마다 중점적으로 두는 교육의 계열이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하여 2022학년도 1학기에 운영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각 학교별로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1

학교 1의 경우 유네스코 학교로, 관련하여 16+1 자율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유네스코 학교란 평화, 자유, 정의, 인권 등의 유네스코의 이념을 실현시키고자 교육 현장 속에서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선구자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관련하여 유네스코 이념과 학교 교육을 통합하여 심화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및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며, [그림 IV-2]의 유네스코 4대 핵심주제를 바탕으로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 및 활동이 진행된다(언양초등학교, n.d., 재인용).



[그림 IV-2] 유네스코의 4대 핵심주제
(언양초등학교, n.d., 재인용)

학교 1은 유네스코의 지속 발전 가능 관련 협약을 주제로 하는 학교이므로 16+1 자율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유네스코에서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 수업이 운영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그림 IV-3]의 UN(United Nations)에서 협의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교사별로 하나씩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학년별로 6차시 분량의 수업을 기획해 학생들로 하여금 2개의 프로젝트를 이수하도록 진행되었다.

[그림 IV-3]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n.d., 재인용)

이때 교사의 수를 반으로 나누어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고, 학생들로 하여금 1일차와 2일차에 각각 하나의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안내되었다. 1, 2학년의 경우 1학기 1차 지필고사 이후와 2차 지필고사 이후에 진행되었으며, 3학년은 1학기 2차 지필평가 이후에 자율교육과정이 진행되었다. '홍보'에 있어 가정통신문이나 e-알리미를 통해 안내되었으며, 관련 부서에서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전달받아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A교사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의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수학과 음악과 친환경 소재를 결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피타고라스 음계를 이용해 실핀을 활용한 칼림바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B교사는 빈곤퇴치의 학습 목표를 바탕으로 음악과 결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빈곤과 상대적·절대적 빈곤에 대해 이해하며, 관련 영화를 감상하고, 수능과 연계된 문제를 제시하며, 캠페인 송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관련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두 교사 모두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A교사의 경우 학생들이 칼림바 만들기 활동을 통해 피타고라스 음계의 원리를 이해하게 된 점에서 적절한 융합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B교사는 소감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빈곤에 대해 파악하고 음악이 효과적으로 작용되는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만족도'에 있어 A, B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

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A교사의 경우 설문조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와의 라포 형성이 잘 되어있는 학생들마저도 좋은 평가를 제공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B교사는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진로・진학 연계'에 있어 A교사, B교사 모두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진학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생활기록부의 개인별 세부 특기사항으로 자율교육과정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도움을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A교사는 표면적으로 도움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장점'에 있어 A교사는 하나의 교과에만 머무른 수업이 아닌 타 교과 및 학문과 융합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을 제공하는 점을 답변하였다. 또한 B교사는 시수의 문제로 수업 내용의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과는 달리, 하루 동안 하나의 주제로 연계된 학습을 진행하여 수업의 연결성에 있어 장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있어 A교사와 B교사 모두 7교시 동안 자율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B교사는 교사들 간 시간표상의 차이로 인해 융합수업을 희망해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본 학교 1에서의 면담을 통해 음악과 관련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 16+1 자율교육과정이 유네스코학교에서 운영된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었다. 관련하여 홍보적인 부분이나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진로 및 진학에 있어 본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기에 개선될 필요성이 존재했다. 또한 한 명의 교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루종일 수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학생과 교사 모두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을 확인하였기에 운영 시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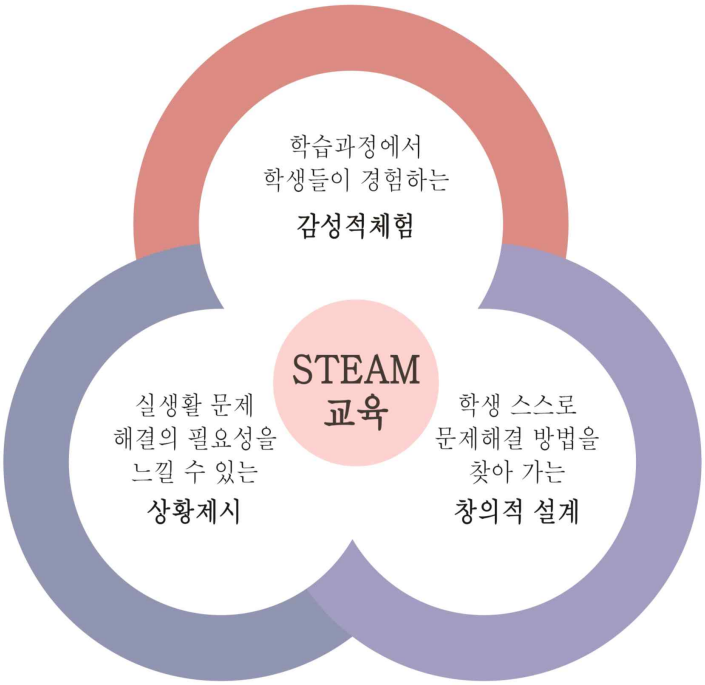
학교 2의 경우 과학중점학교로 관련하여 16+1 자율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과학중점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과학적인 소양을 기르고 이공계 관련 학과로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과 과학 관련 과목의 심도있는 교육이 진행되는 학교이다. 또한 이공계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며, 별도의 학급을 운영하여 과학 및 수학과 관련하여 심화된 수업을 제공하고, 전문 교과 및 관련 대학 학과와의 연계 수업을 제공하여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충주고등학교, n.d.).

관련하여 학교 2에서는 음악과 과학이 연계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16+1 자율교육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운영 시기 및 방법에 있어 1학기 2차 지필평가 이후 5일 동안 진행되어 정규 교과 수업 중 30시간을 운영하였다. 또한 30시간 중 A, B 두 개의 수업으로 구분하여 15시간씩 총 30시간을 이수하도록 안내하였다. '홍보'에 있어 학생들에게 e알리미를 통해 전송하고 그에 대한 회신을 받는 방식으로 선착순 수강신청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C교사는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경 캠페인 송을 작곡한 창작 수업의 난이도를 높여 음악과 환경 관련 분야의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D교사는 블록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음악과 과학 분야의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주할 수 있는 기악수업을 진행하였다. 관련하여 '학생들의 수요도'에 있어 D교사의 코딩과 음악을 결합한 수업이 C교사의 음악과 환경을 결합한 수업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C교사와 D교사 모두 학습 내용 수준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C교사는 음악에 전문성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졌으나,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진행된 부분이 나타났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D교사는 학생들이 교사보다 프로그

램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어나가며 더 높은 난이도의 수업을 희망하는 부분도 나타났다고 답변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에 있어 C교사는 음악에 전문성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진로에도 반영되어 유의미한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다. 관련하여 ‘진로・진학 연계’에 있어 음악과 환경 뿐만 아니라 영문과 같은 다른 진로 및 진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도움이 되었으며, 수업 전후로 학생들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16+1 자율교육과정 외에도 학교 2에서는 과학중점학교의 학교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STEAM 교육이 이루어진 부분을 확인하였다. STEAM 교육은 과학을 의미하는 Science, 기술을 의미하는 Technology, 공학을 의미하는 Engineering, 인문・예술을 의미하는 Arts, 수학을 의미하는 Mathematics의 선두에 있는 알파벳을 조합하여 만든 용어이며, 과학기술 분야(STEM)와 함께 인문・예술(Arts)적 요소를 더해 운영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교수학습 준거에 있어 [그림 Ⅳ-4]와 같이 ‘상황제시’,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로 구성된다. ‘상황제시’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삶과 학습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다. 또한 ‘창의적 설계’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창의성을 기르도록 하며, ‘감성적 체험’은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과 성찰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STEAM교육, n.d.).



[그림 IV-4] STEAM 교수학습 준거(STEAM 교육, n.d.)

특히 학교 2에서는 STEAM 교육 관련 행사로써 과학부 주관으로 음악과 과학을 연계한 칼림바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음향적인 부분에서는 실제 악기 소리와 차이가 존재했으며 좋은 소리의 구현에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칼림바 악기의 구조를 이해하고 원리를 파악하는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었으며, 융합적인 수업을 경험한 부분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밖에도 '사이언스아트경연대회'와 같은 학교 행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이 과학과 예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안하여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리해보면, 본 학교 2에서의 면담을 통해 음악과 관련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 16+1 자율교육과정과 STEAM 교육이 과학중점학교에서 운영된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6+1 자율교육과정과 관련

하여 음악과 과학을 연계하여 블록코딩프로그램을 활용한 기악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의 높은 수요도가 나타났던 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졌다. 그러나 음악에 전문성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보였기에 보다 학습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졌다. 또한 STEAM 교육과 관련하여 음악과에서는 칼림바 악기를 만드는 활동이 진행되었고, 악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원리를 학습함에 있어 유의미한 결과가 존재했다. 그러나 음악은 소리가 중시되는 특징이 있으며, 실제 악기소리와 유사하게 구현해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음향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 3

학교 3의 경우 AI융합교육중점학교로 관련하여 16+1 자율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AI융합교육중점학교란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미래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학교 수업 과목의 15%를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운영하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기초, 빅데이터 등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교육부 TV, n.d.).

관련하여 학교 3에서는 음악과 AI가 연계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16+1 자율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 운영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1학기 지필고사가 끝난 이후로 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을 오전, 오후팀으로 3시간씩 나누어 4일 동안 진행되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프로그램이 진행된 4일 중 3일 동안만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첫째 날의 오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 오후에는 설문지, 발표 등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관련하여 E교사는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경우 혼자서 7교시 동안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홍보’에 있어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고 가정통신

문을 통해 안내하였으며 리로스쿨을 통해 선착순 수강 신청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게 되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 학교 3에서 진행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총 3개이며, E교사는 AI도구를 활용한 융합음악수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다른 음악교사의 경우 음악연주수업을 진행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다른 교과의 교사가 밴드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기악과 관련하여 음악수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관련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E교사는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연주 가능한 악기로 진행되어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학생들의 만족도’에 있어 E교사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E교사가 진행했던 AI융합음악 수업에서 음악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참여한 점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며 발표활동까지 이어진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진로·진학 연계’에 있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반영함으로써 도움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있어 1학기 성적 평가와 3학년 학생들의 진학 지도가 이루어진 시기에 함께 진행되어 어려움이 있었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존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정리해보면 본 학교 3에서의 면담을 통해 음악과 관련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으로 16+1 자율교육과정이 AI융합교육중점학교에서 운영된 구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기악과 연계된 음악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진행된 발표활동에 대해 생활기록부에도 반영하여 진로·진학에 도움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 시기에 있어 성적 평가가 많이 진행되는 시기에 운영되어 교사에게 업무 부담이 작용되는 부분을 확인하였기에 운영 시기상의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졌다.

(4) 학교 4

학교 4는 IT융합교과중점학교이자 예술드림거점학교이다. IT융합교과중점학교는 지능정보화시대를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아갈 IT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며, IT계열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학교이다(운암고등학교, n.d., 재인용). 관련하여 학교 4에서는 IT분야의 자율동아리를 운영하고, 다양한 대회 및 공모전 준비를 도우며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여 진로 및 진학에 도움을 얻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예술드림거점학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학교 교육 안에서 예술 관련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예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학교이며,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폭넓은 예술 교육이 운영된다(운암고등학교, n.d., 재인용).

그러나 면담 결과 학교 4에서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와 달리 음악과 관련된 16+1 자율교육과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음악과 관련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조사해본 결과 해당 학교에서는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운영하여 관련 학교 특색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었지만 면담을 통해 고교학점제와는 무관하게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임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고교학점제의 선도학교로 지정된 이후 새롭게 운영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음악 교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분석

음악 교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를 분석하고자 면담의 세부 영역을 1) 수업 기획, 2) 수업 진행, 3) 수업 평가, 4) 수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를 선행연구 및 문헌들과 함께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기획

수업 기획과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음악 수업 기획 시 고려한 점, (2) 음악 교과의 선택 과목 안내, (3)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 (4) 음악 수업 기획 단계에서의 어려움, (5) 음악 수업 기획 단계에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악 수업 기획 시 고려한 점

연구참여자들이 음악 수업 기획과 관련하여 고려한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연구참여자들이 음악 수업 기획과 관련하여 고려한 점

학교	교사	교사 간 협의	학생 수요	예산	학생의 흥미	학교 및 지역 상황	진로·진학 연계	학생 수준	기타
1	A	○	○						
	B	○			○	○	○		
2	C		○	○					
	D				○				
3	E								○
4	F	○				○		○	

이를 통해 음악 수업을 기획할 때 연구참여자들은 교사 간 협의를 가장 많이 고려하며, 그 외에도 학생의 수요, 예산, 학교 및 지역 상황 등 다양하게 고려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관련된 문제점으로 D교사는 인문계 고등학교의 상황상 음악 교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기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기타 의견으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에도 변화 없이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수업 기획이 이루어지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음악 교과가 고교학점제에서 갖는 의미를 파악하고, 고교학점제에 맞는 음악 교과의 수업 기획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음악 교과의 선택 과목 안내

음악 교과의 선택 과목 안내에 있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경우, 교육과정부와 담임교사, 교과별 수업을 통해 진행되며,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박람회,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제시되었으며, 관련하여 '음악 교과가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이 적은 문제'와 '교육과정상의 혼란이 존재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음악 교과가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이 적은 문제'에 있어, D교사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음악 교과에 대한 무관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 및 교사에게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지 않아 과목 선택에 대한 안내 없이 학교 지정 과목에 따라 운영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F교사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많이 반영되는 과목들과는 달리 음악 교과의 선택 과목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상의 혼란이 존재하는 문제'에 있어, 아직 전면 도입되기 이전의 단계이므로 교육과정상의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문제도 존재하였다. 관련하여 E교사는 학년에 걸쳐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정착되지 못하고 변화되는 교육과정에 학생들이 과목 선택에 혼란을 느끼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3)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조사

음악 선택 과목의 학생들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체계적인 단계를 가지고, 다양한 학교 상황을 선행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교 1의 경우 학사통합 관리시스템(ex. 리로스쿨, 1차 선택) → 고교학점제 관련 프로그램(ex. 박람회, 2차 선택) → 각 교과별 (3차 선택)으로 체계적인 수요조사가 진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 3과 같이 음악 수업의 특성상 악기나 음악실 등의 수업 도구와 장소 상의 제약이 존재하기에 학교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여 선택 과목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진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음악 선택 과목에 있어 학생들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선택 과목을 지정・운영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 2와 학교 4 모두 진정한 의미에서 과목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음악 선택 과목에 있어 학생과 교사 모두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다는 현장의 심각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4) 음악 수업 기획 단계에서의 어려움

음악 수업 기획 단계에서의 어려움에 있어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의견으로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에서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과목의 수강이 결정되는 만큼 학생 수요가 과목의 운영 및 존폐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점을 알 수 있다. 관련하여 '진로 선택 과목'으로 운영되는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어려움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음악 연주>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창 수업에 대해 선호하지 않아 수요도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B교사와 F교사는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과목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한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E교사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배정되는 학생들에게 통일성이 없어 가창과 기악 수업 모두 음악적 수준 차이가 나타나게 되며 동일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과목 선택에 있어 대학 입시 제도와의 괴리로 인해 학생들이 충분한 선택을 보장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입시 제도가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경우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학교에서 일정 부분 선택 과목에 대한 기준을 정해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도 '음악 교과의 절대적인 시수 부족'으로 인해 완성도 높은 수업을 만들기 어려운 문제와 '음악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학교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다.

(5) 음악 수업 기획 단계에서의 전략

음악 수업 기획 단계에서의 전략에 있어 앞서 제시된 어려움에 대해

연구참여자들만의 방식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우선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 수요'에 있어 B교사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과목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생 수요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C교사와 D교사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과목을 재구성함으로써 학생 수요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D교사는 기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악기를 구매하는 등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의 어려움에 있어 E교사는 반마다 학생 수준에 따라 커리큘럼을 다르게 운영하여 수업 출발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충분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F교사는 선택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에 대한 학습과 함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수 부족'과 '학교 상황'에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과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수업 진행

수업 진행과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교육과정 운영, (2) 선택 과목, (3) 음악 수업 진행 단계에서의 어려움, (4) 음악 수업 진행 단계에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는 음악과 관련하여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영역 간 선택 과목(전문교과)이 편성・운영되며, 연구참여자들의 각 학교에서 편성된 교육과정 편제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은 <표 IV-6>과 같다.

<표 IV-6> 연구참여자의 각 학교별 음악 관련 교육과정 편제표

학교	교과(군)	구분	과목	운영 단위(학년 - 학기)					
				1-1	1-2	2-1	2-2	3-1	3-2
1	예술	일반	음악 ↔ 미술	3	3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택 1)			1	1		
			음악 연주, 미술 창작 (택 1)					2	2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음악 전공 실기,					2	2

학교	교과(군)	구분	과목	운영 단위(학년 - 학기)					
				1-1	1-2	2-1	2-2	3-1	3-2
2	예술	일반	음악 ↔ 미술	3	3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 미술 창작					2	2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음악 관련 과목 편성 X						

학교	교과(군)	구분	과목	운영 단위(학년 - 학기)					
				1-1	1-2	2-1	2-2	3-1	3-2
3	예술	일반	음악, 미술 (택 1)	2	2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택 1)			2	2		
			음악 연주, 미술 감상과 비평 (택 1)					1	1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음악 전공 실기, 미술 이론, 체육 전공 실기 심화 (택 2)					2	2
			음악 이론, 체육탐구, 매체미술, 데이터과학과 머신러닝 (택 3)					3	3

학교	교과(군)	구분	과목	운영 단위(학년 - 학기)					
				1-1	1-2	2-1	2-2	3-1	3-2
4	예술	일반	음악	2	2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택 1)			1	1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 (전문 교과)		음악 관련 과목 편성 X						

이를 통해 음악 교과를 최대로 이수할 경우 운영 단위가 적게는 6단위 많게는 16단위로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 선택 과목' 중 <음악>은 모두 1학년에 편성되며, 학교 1·2는 미술 과목과 한 학기씩 교차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편성되었지만, 학교 3에서는 학생들에게 선택을 통한 수강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학교 4에서는 음악을 공통적으로 필수 이수하도록 편성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진로 선택 과목'은 학교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2학년과 3학년에 걸쳐 편성·운영되고, 미술 교과와 음악 교과가 학기별로 교차 진행되는 학교 2를 제외하고는 선택을 통해 하나의 과목만 수강하도록 한 점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수 등 학교 상황의 문제로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의 두 진로 선택 과목 중 <음악 감상과 비평> 한 과목만 학교 자체적으로 지정되어 편성된 학교들도 존재하였다. 더불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교 유형간 과목의 차이를 없애고 보다 넓은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으로 '전문 교과'를 편성하고 있는데, 연구참여자의 학교들 중에는 음악 관련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이 편성되지 않는 학교가 존재하며,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로 <음악 전공 실기> 과목으로 3학년에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의 음악 수업에서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표 IV-7>과 같다.

<표 IV-7> 음악 수업에서의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

학교	구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	학급 수 (학급)	10	평균 5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짐)	평균 6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짐)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2명	최대 33-34명 / 최소 30명 이내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짐)	
2	학급 수 (학급)	10	.	5
	학급당 학생 수	평균 35명	.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짐 (최대 40명 / 최소 20명 이내)
3	학급 수 (학급)	단일 학급, 두 학급, 세 학급 등 다양하게 나타남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짐)		
	학급당 학생 수	최대 32명 / 최소 18명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짐)		
4	학급 수 (학급)	10	평균 3-4 학급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짐)	
	학급당 학생 수	평균 28명	최대 30명 / 최소 20명 초반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짐)	

1학년의 경우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학교 3을 제외하고는 음악 과목이 1개 학기 혹은 2개 학기 동안 필수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 다른 교과와 동일하게 주어진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2, 3학년의 경우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 달라지며 학급에 있어 최소 3개 학급에서 최대 6학급으로,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

최소 18명에서 최대 40명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적을 경우 교사의 티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많은 경우 학생 관리 및 수업 도구의 부족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더불어 연구참여자의 학교에서 진행된 음악 수업의 학생 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 1과 학교 3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문・이과에 따라 먼저 구분하고, 이후 학생들이 선택한 다른 선택 과목에 따라 시간표를 고려하여 배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방법으로 배정될 경우 성비 등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나타났다. 또한 학교 2에서는 미술과 음악이 학기에 따라 교차적으로 진행되므로 한 학년의 10개 학급을 반으로 나누어 학기에 따라 교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 4에서와 같이 음악과 미술 중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먼저 반 편성이 일어나고 이후에 다른 과목들이 배정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2) 선택 과목

선택 과목에 있어 학생들의 희망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선택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과 ‘교과 영역 간 선택 과목(이하 전문 교과)’이며, 관련하여 2020학년도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지도한 과목을 정리한 내용은 <표 IV-8>과 같다.

<표 IV-8> 2020년 이후 연구참여자들이 지도한 과목

학교	연구참여자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1	A교사	진로	음악 연주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전문	.	음악 전공 실기	.
	B교사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전문	.	.	.
2	C교사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전문	.	.	.
	D교사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전문	.	.	.
3	E교사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음악 연주
		전문	.	.	.
4	F교사	진로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감상과 비평
		전문	.	.	.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지도한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 중 <음악 감상과 비평>이며, 이는 학교 자체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음악 감상과 비평>만을 지정하여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보여졌다. 또한 '전문 교과'에 있어 학교 3에서는 교육과정 편제표에 <음악 전공 실기>와 <음악이론>이 편성된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운영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수요 문제로 수강을 희망한 학생 수가 과목 개설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여 실제로 운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학교 1에서는 <음악 전공 실기>가 2021학년도에만 편성·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이 실제로 지도한 선택 과목은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전공 실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교과에 있어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학생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

하는 문제가, 전문 교과에서는 학생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추가적으로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① 수업 지도 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 ②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도, ③ 음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④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수업, ⑤ 음악 수업과 진로·진학의 연계 방안, ⑥ 음악 수업에서의 장점, ⑦ 음악 수업에서의 문제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업 지도 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

수업 지도 시 중요하게 고려한 점에 있어 <음악 연주>와 <음악 전공 실기>의 경우 과목명과 일치하게 실기 활동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B교사는 실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며 수업을 진행한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음악 감상과 비평>의 경우 과목명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감상과 비평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기 중심의 수업으로 과목 간의 구분 없이 수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 D교사는 감상 활동에 대한 한계를, A교사는 비평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음악 감상과 비평> 수업에서 B교사는 학생들이 단순히 곡에 대한 감상평을 발표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비평을 할 수 있도록 비평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C교사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음악과 진로의 연계 방안을 고려한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 모두 COVID-19로 인해 기존의 방식대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수업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나타났다. 관련하여 E교사는 <음악 연주>에서 가창수업에 대한 어려움과 사용 악기에 대한 제한이 나타난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D교사는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 온/오프라인 수업 방식에 따라 수업 활동의 차이가 나타난 점을 제시하

였다. 그 밖에도 선택 과목의 구분 없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나 다양한 음악적 경험 등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도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도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상황 및 분위기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학교 1의 경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음악을 선호하는 분위기의 학교라는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운영하는 음악 선택 과목 모두 수요도가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2의 경우 음악 선택 과목이 학생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학교에서 지정되어 운영되기에 수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음을 밝혔다. 학교 3의 경우 음악 선택 과목에 있어 미술중점학교의 특성상 <음악 감상과 비평>의 경우 미술 교과보다 1-2학급 정도는 적게 운영되지만, <음악 연주>의 경우 미술교과와 비슷하게 학급이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4의 경우 여러 학교의 상황적인 문제로 선택 과목에 대해 학생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특히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는 학생 수요가 적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

③ 음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음악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있어 <음악 연주>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E교사는 타악기와 같은 비교적 쉬운 악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학생들이 기악 활동을 선호하고, 비평 활동에 지루함을 느끼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비평 활동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며, 장르에 따른 음악적 선호도 차이를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선택 과목과 상관 없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학생과 교사의 라포 형성'도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관련하여 C교사는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 동일한 수업을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공했을 때와는 달리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라포 형성'과 관련하여 A교사는 학생들이 교사와 라포를 형성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경우 긍정적인 수업 만족도를 보인 점을 제시하였다.

④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수업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수업에 있어 <음악 연주>에서는 사용된 악기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들이 평소에 많이 접해보지 못한 악기나 아름다운 소리의 악기로 수업을 진행했을 경우 좋은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연주하며 자신의 음악적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타났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답변을 제시한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한 악기들은 <표 IV-9>와 같다.

<표 IV-9> 연구참여자들이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던 수업에서 사용한 악기

연구참여자	사용 악기
B교사	리라, 톤차임
D교사	카혼
E교사	드럼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는 감상 활동에서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교사는 수업에서 사용된 음악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어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경우를 제시하였다. 또한 B

교사와 E교사는 대중가요를 주제로 음악 수업을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난 경우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C교사는 학생들이 진행했던 수업 내용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진로·진학에 도움을 얻었을 때에도 좋은 반응이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와는 연관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⑤ 음악 수업과 진로·진학의 연계 방안

음악 수업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있어 도움을 준 경우 음악과 학생 희망 진로가 연계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특기 사항에 관련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C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기 전 학생들의 희망 진로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연계된 수업을 제공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D교사와 F교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 근본적으로는 진로·진학 연계에는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D교사는 소수의 학생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대부분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를, F교사는 현재 운영되는 교육과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⑥ 음악 수업에서의 장점

<음악 연주>의 장점으로 D교사는 학생들이 기악 수업에 흥미를 느끼며,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대부분 실습으로 이루어져 이론이 많지 않아 부담없이 편안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제시하였다.

<음악 감상과 비평>의 장점으로 A교사는 음악을 통해 학생들이 치유를 얻게 되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B교사는 감상 이후 비평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수업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얻게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C교사는 진로·진학 연계에 있어서도 수

업 기획단계부터 유념하여 기획하기에 도움이 되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F교사는 지도한 <음악 감상과 비평> 수업과 관련하여 장점이 없으며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⑦ 음악 수업에서의 문제점

음악 수업에서의 문제점에 있어 우선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 모두'기존의 음악 수업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이 공통적인 문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B교사는 <음악 연주>의 경우 과목의 특색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F교사는 <음악 감상과 비평>의 경우 교사가 교육과정 재구성을 하지 않아 기존과 동일한 음악 수업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해당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음악교사의 정원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음악 연주>의 경우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와 '예산 확보'에 있어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A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로 인해 주어진 시간 안에 곡을 완전히 익힐 수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악기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며, 관련된 예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음을 제시하였다.

<음악 감상과 비평>의 경우 '시수 부족'과 '학생들의 흥미', '교과서 구성'에서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시수 부족'과 관련하여 A교사는 주당 1시간이라는 적은 시수의 상황에서 학교 행사로 인해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길이가 긴 제재곡이 주어진 경우 수업 시수가 적어 전 차시에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흥미'와 관련하여 B·C·F교사는 과목 자체가 지루하며,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기 어려워 학교 현장에서 운영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F교사는 학생들의 음악 과목에 대한 선택

이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교과서 구성'에 있어서도 A·B·D교사는 음악적 정보보다는 글이 너무 많아 음악 수업과는 맞지 않았으며 수업에서 전혀 활용할 수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음악 수업 진행 단계에서의 어려움

음악 수업 진행 단계에서의 어려움에 있어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음악 수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A교사와 B교사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음악 관련 진로 및 진학을 희망하지 않으며, 성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특정 활동을 기피하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B교사는 <음악 연주> 중 '가창' 활동을, E교사와 F교사는 <음악 감상과 비평> 중 '감상' 활동을 학생들이 기피한 점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악기 수급'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D교사는 피아노 수업에서, E교사는 드럼 수업에서 악기 수급의 문제를 겪은 상황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F교사는 실기 수업과 관련하여 수업 교구와 공간의 관리로 인한 업무 부담이 존재했던 경험을 제시하였다.

(4) 음악 수업 진행 단계에서의 전략

음악 수업 진행 단계에서의 전략에 있어 연구참여자마다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어려움에 대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났다. 첫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활용되는 곡의 선정'과 관련된 전략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A교사와 B교사는 학생들이 음악 시간을 지루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자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며 관련 곡을 음악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점을 제

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점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E교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퀴즈와 설문지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높였으며,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을 운영하여 시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E교사는 연주 수업에서 악기가 부족할 경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악기 연습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로는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진로・진학과 연계된 음악 수업을 진행’하는 점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대학 입시를 앞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점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A교사는 <음악 감상과 비평>에서 학생들이 직접 연주한 활동에 대한 감상과 비평 활동을 진행하여 통합된 음악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낸 경험을 제시하였다.

3) 수업 평가

수업 평가와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수업 평가 방식, (2) 중요하게 고려한 평가 요소, (3) 평가에서의 진로·진학 반영, (4) 이수/미이수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5) 음악 수업 평가 단계에서의 어려움, (6) 음악 수업 평가 단계에서의 전략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업 평가 방식

수업 평가는 일련의 학습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판단하고 수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점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논술형 평가과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을 늘리는 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음악 과목의 경우 영역에 있어 표현, 감상, 생활화의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각 학교별 세부적인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1의 경우 음악 선택 과목으로 운영된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 <음악 전공 실기>의 네 과목 모두 수행평가 100%로 실시되었으며, 평가 영역과 논술형 평가 비율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표 IV-10>과 같다.

<표 IV-10> 학교 1의 세부 평가 내용

과목명	구분	수행평가 (100%)		
음악	평가의 영역 (%)	감상	표현 1	표현 2
		35	30	35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35	.	.
음악 감상과 비평	평가의 영역 (%)	연주비평	창작비평	표현
		35	35	30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35	.	.
음악 연주	평가의 영역 (%)	연주비평	표현 1	표현 2
		30	35	35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30	.	.
음악 전공 실기	평가의 영역 (%)	감상과 비평	성악연주	피아노연주
		35	35	30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35	.	.

첫 번째로 <음악>의 평가 영역을 보면, 감상이 35%, 표현 1이 30%, 표현 2가 35%로 반영되었으며, 표현 관련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감상 영역 100%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음악 감상과 비평>의 평가 영역을 보면, 연주비평이 35%, 창작비평이 35%, 표현이 30%로 반영되었으며, 비평 관련 영역의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연주비평 영역 100%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음악 연주>의 평가 영역을 보면, 연주비평이 30%, 표현 1이 35%, 표현 2가 35%로 반영되었으며, 표현 관련 영역의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연주비평 영역 100%로 진행되었다. 네 번째로 <음악 전공 실기>의 평가 영역을 보면, 감상과 비평이 35%, 성악연주가 35%, 피아노연주가 30%로 반영되었으며, 연주 관련 영역의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감상과 비평 영역 100%로 진행되었다.

학교 2의 경우 음악 선택 과목 중 음악은 수행평가 100%로 실시되었지만 음악 감상과 비평은 지필평가 50% + 수행평가 50%로 실시된 점에서 차이를 보였고, 평가 영역과 논술형 평가 비율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학교 2의 세부 평가 내용

과목명	구분	수행평가 (100%)			
음악	평가의 영역 (%)	칼림바 연주하기	감상	카혼 연주하기	음악 만들기
		30	20	30	20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	20	.	.
음악 감상과 비평	평가의 영역 (%)	2차	자아 탐구 작문 활동	공동체 탐구 작문 활동	
		50 (선택형)	25 (논술형 + 고유영역)	25 (논술형 + 고유영역)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	20	20	

첫 번째로 <음악>의 평가 영역을 보면, 칼림바 연주하기가 30%, 감상이 20%, 카혼 연주하기가 30%, 음악 만들기가 20%로 반영되었으며, 연

주 관련 영역의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감상 영역 100%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음악 감상과 비평>의 평가 영역을 보면, 지필평가 50%에서는 2차 시험(선택형) 50%로 반영되었고, 수행평가 50%에서는 자아 탐구 작문 활동과 공동체 탐구 작문 활동이 각각 25%의 동일한 비율로 평가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지필평가에서는 진행되지 않았고, 수행평가 중 자아 탐구 작문 활동과 공동체 탐구 작문 활동 각 영역의 80%만 반영되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3의 경우 음악 선택 과목으로 운영된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 <음악 연주>의 세 과목 모두 수행평가 100%로 실시되었으며, 평가 영역과 논술형 평가 비율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표 Ⅳ-12>와 같다.

<표 Ⅳ-12> 학교 3의 세부 평가 내용

과목명	구분	수행평가 (100%)		
음악	평가의 영역 (%)	드럼 연주	칼림바 연주	논술 (예술가곡의 특징)
		40	40	20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	.	20
음악 감상과 비평	평가의 영역 (%)	감상 비평1	감상 비평2	논술 (음악작품 조사)
		35	35	30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	.	30
음악 연주	평가의 영역 (%)	악기 연주	논술 (음악 저작권)	논술 (음악 연주 기획)
		40	30	30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	30	30

첫 번째로 <음악>의 평가 영역을 보면, 드럼 연주가 40%, 칼림바 연주가 40%, 논술이 20%로 반영되었으며, 연주 관련 영역의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논술의 별도 영역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술 가곡의 특징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음악 감상과 비평>의 평가 영역을 보면, 감상 비평1이 35%, 감상 비평2가 35%, 논술이 30%로 반영되었으며, 감상 비평 관련 영역의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음악 과목과 동일하게 논술의 별도 영역으로 진행되었으며, 음악작품 조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세 번째로 <음악 연주>의 평가 영역을 보면, 악기 연주 40%, 논술 60%로 반영되었으며, 연

주보다도 논술의 평가 반영 비율이 더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논술의 별도 영역으로 진행된 점에서는 앞서 제시된 두 과목과 동일하지만, 음악 저작권과 음악 연주 기획으로 나누어 평가를 반영한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학교 4의 경우 음악 선택 과목으로 운영된 <음악>, <음악 감상과 비평>의 두 과목 모두 수행평가 100%로 실시되었으며, 평가 영역과 논술형 평가 비율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표 IV-13>과 같다.

<표 IV-13> 학교 4의 세부 평가 내용

과목명	구분	수행평가 (100%)		
음악	평가의 영역 (%)	표현 (통기타 연주)	생활화 (광고음악기획)	감상
		35	35	30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	.	30
음악 감상과 비평	평가의 영역 (%)	표현 (통기타 연주)	시와노래의 어울림 (이탈리아 가곡 노래하기)	감상과 비평(논술형)
		40	30	30
	논술형 평가 반영 비율 (%)	.	.	30

첫 번째로 <음악>의 평가 영역을 보면, 표현이 35%, 생활화가 35%, 감상이 30%로 반영되었으며, 표현과 생활화 영역의 평가 반영 비율이 동일하게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감상 영역 100%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로 <음악 감상과 비평>의 평가 영역을 보면, 표현이 40%, 시와 노래의 어울림이 30%, 감상과 비평이 30%로 반

영되었으며, 표현 영역의 평가 반영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논술형 평가의 경우 감상과 비평 영역 100%로 진행되었다.

정리해보면, 대부분 음악 수업의 평가가 '수행평가' 100%로 진행되었으며, '논술형 평가'가 20-35%로 일정 부분 진행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목별 세부 평가 영역에 있어, 첫 번째로 <음악>의 경우 대부분 연주 활동과 관련된 연주 및 표현 영역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4에서는 생활화 영역이 동일한 비율로 함께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음악 감상과 비평>의 경우 대부분 감상 및 비평과 관련된 영역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4와 같이 감상 및 비평 관련 영역보다 표현 영역이 평가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세 번째로 <음악 연주>의 경우 학교 1에서는 연주 관련 영역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3과 같이 연주보다 논술 영역이 평가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네 번째로 <음악 전공 실기>의 경우 연주 관련 영역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동일한 과목에 있어 학교마다 평가 영역을 과목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정하여 진행된 예외적인 상황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중요하게 고려한 평가 요소

중요하게 고려한 평가 요소에 있어 연구참여자 모두 음악적인 역량을 답변하였으며,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리듬, 선율, 화음, 형식, 셈여림, 빠르기, 음색'을 평가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고자 하는 점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게 진로·진학 연계 방안을 고려하며, 컨디션 등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에 정의적인 영역도 함께 고려하여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평가 영역별 세부 내용을 보면, ‘연주 관련 영역’에서는 표현력, 음악성, 암보와 같은 발표 능력들이 평가 요소로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 감상과 비평 영역’에서는 감상과 연계하여 글로 표현하고 비평하는 능력도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논술 영역’에서는 음악과 관련없이 작성 자체에 의의를 두어 최대한 좋은 점수를 부여하고자 고려하는 점에서 대학 진학 시 음악 점수가 반영되지 않아 학생들이 음악 평가를 도외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평가에서의 진로・진학 반영

면담 결과 평가에 있어 연구참여자들 모두 학생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진로・진학 반영을 반영하였으며,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진학에 따라 수업 내용을 구성하고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교사와 B교사는 음악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 수업 외적으로 학교에서 진행된 음악 관련 행사에 참여한 부분도 학생생활기록부의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이나 진로 부분에 관련지어 작성하여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음악 수업에서의 평가가 진로・진학에 근본적으로는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의견도 다소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일부의 학생들에게만 도움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학교에서 음악 성적이 내신으로 반영되지 않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F교사는 학생생활기록부에만 기록될 뿐 진로・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4) 이수/미이수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

면담 결과 이수/미이수 제도가 올해까지는 필수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3과 학교 4의 경우 학교 자체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학교 1의 경우 음악 교과 등의 일부 교과들에서는 실시되지 않았고, 유일하게 학교 2의 경우에서만 음악 교과에서 실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련하여 학교 2에서는 미이수 학생을 위한 후속조치로 온라인 수업을 개설하고 관련하여 과제 및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으로 보충 지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음악 성적이 대학 진학에 반영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미이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기에 내신 성적이 진학 성적에 반영되지 않아 학교를 등교하지 않았던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D교사는 온라인으로 보충 지도를 진행하였음에도 학생이 입시 전문 기숙학원에서 생활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사례를 제시하였다.

(5) 음악 수업 평가 단계에서의 어려움

음악 수업 평가 단계에서의 어려움에 있어 면담 결과 첫 번째로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음악 교과의 경우 절대평가로 성적 평가가 진행되며, 대부분 좋은 점수를 제공하다보니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A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가 있어 개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시간상의 문제로 진행되기 어려웠던 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E교사는 음악적 능력보다 작문 능력이 강한 학생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경우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진로・진학 연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교사의 입장에서 진로・진학에 근본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여 전문성을 기르고자 하지만 업무 과중으로 시도할 수 없었던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D교사는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진로・진학과 관련하여 수업 평가 기록까지는 일체화되지 못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평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는 점'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F교사는 음악 감

상 후 주관적인 의견을 물어보는 문제의 경우 점수를 부여하기 어려웠으며, 평가 기준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검증받을 수 없었던 점을 제시하였다.

(6) 음악 수업 평가 단계에서의 전략

음악 수업 평가 단계에서의 전략에 있어 연구참여자마다 다양한 방식의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앞서 제시된 어려움에 대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났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평가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A교사는 메모를 통해 평가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평가의 근거를 확보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B교사는 최대한 평가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학생들에게 사전에 교사의 전문성에 대해 알리며, 시험이 끝난 즉시 평가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진로・진학 연계'와 관련하여 C교사는 학생의 진로・진학과 성향에 대해 파악하여 개별화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평가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E교사는 <음악 연주>와 <음악 감상과 비평>으로 과목을 나누어 세부적으로 전략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으로 <음악 연주>의 평가에서는 주어진 짧은 평가 시간 동안 학생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음악 감상과 비평>의 평가에서는 하나의 장르만 평가하는 것이 아닌 다른 장르 및 시대의 음악도 함께 연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 '학습동기유발'과 관련하여 D교사는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동기유발과 학습의 지속에 도움을 얻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로 '교육경력'과 관련하여 F교사는 오랜 시간의 교직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체득된 교사의 교육 경력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4) 수업 지원

수업 지원과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외부 강사 채용, (2) 음악 수업 환경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부 강사 채용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수업 지원과 관련하여 교원 수급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관련하여 허주 외(2020)는 교원 수급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적인 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수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교원총연합회(2021)에서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 2399명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인식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움' 항복에 있어'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신문, 2021). 이러한 교원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동교육과정과 더불어 외부 강사 채용을 통한 다양한 수업 운영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학교에서의 외부 강사 채용 현황에 대해 알아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부 강사 채용에 있어 면담 결과 6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교과에서는 외부 강사를 채용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교과 외로 방과후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학교 특색 프로그램에서는 외부 강사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B교사는 음악 관련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외부 강사 채용을 통해 비대면 상담, 강의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 강사 채용 방식에 있어 대부분 교육청의 지원 사업과 학교 자체적인 공개 채용을 통해 채용되며, 간혹 교사들 간의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인 만큼 모든 경우 최종적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성범죄 관련 기록을 조회하여 채용이 승인되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외부 강사 채용 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는 외부 강사의 지원율이 적은 문제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학교의 위치를, D교사는 학생들의 무기력함과 적은 시수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는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채용하는 문제가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F교사는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채용하여 수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F교사는 학교마다 지원의 폭이 다르게 나타나며, 교육청의 경우 학교 예산으로의 해결을 제안하는 등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E교사는 업무 분장이 없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문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외부 강사 채용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이 충분하게 지원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관련하여 C교사는 예술 분야에 있어 학교 및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도 일치하는 방향으로 원활히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였다.

(2) 음악 수업 환경

고교학점제의 도입 이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 공간 및 학습 기자재의 변화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 이동 수업이 진행되기에 공강 시간을 위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같은 변화된 수업을 위한 학교 공간 및 학습기자재 지원이 학교공간혁신사업 등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통해 지원되고 있다(고교학점제, n.d.). 이에 따라 면담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된 학교에서의 음악 수업 환경 변화에 대해 알아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음악 수업 환경에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경험한 음악 수업 환경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A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음악 수업 환경과 관련하여 일부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간 연계 학습이 가능해졌으며,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를 위한 예산을 따로 편성하여 충분하게 지원하였고, 관련하여 새로운 악기를 구비해 성공적으로 수업에서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학교의 상황을 통해 충분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B교사는 오래전에 개교한 학교의 경우 학교 공간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C교사는 학교 공간의 변화와 함께 학습 기자재에서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음악 수업 환경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로는 음악실의 확보가 어려웠던 점이다. 구체적으로 F교사는 기본적으로 음악실의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음악 수업 시간 외에도 다른 교과나 쉬는 시간에 사용되는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관련하여 두 번째로 음악실이 개방적으로 운영되어 악기 관리에 어려움이 존재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는 음악 수업에 대한 관리자 및 다른 동료 교사의 무관심이 존재한 점이다. 구체적으로 D교사는 음악교사가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이상 음악 수업 환경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는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F교사는 오케스트라 활동 중 악기와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와 교육청 모두 지원해주지 않았던 경우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교사는 공간 변화에 있어 규모에 따른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

다. 이와 함께 D교사와 E교사는 관련 상황에서 교사의 의견이 배제되는 문제를 제시하였다.

3.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면담의 세부 영역을 1) 교육과정 운영, 2) 음악 선택 과목, 3) 음악교사의 교수 역량, 4) 교사의 업무 부담, 5)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적합성과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 (2) 음악 수업 학급 수의 적합성, (3) 음악 수업 학급당 학생 수의 적합성, (4) 음악 수업에 적용된 학생 배정 방식의 적합성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과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

교육과정 편성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이 교육과정 편성이 적합하게 이루어졌다고 제시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음악과 미술의 교육과정 편성이 동일하게 주어진 경우를 제시하였다. 또한 A교사와 B교사는 음악교사 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D교사와 F교사는 1학년에 음악 시수가 2시수 이상 편성된 부분에서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연구참여자들이 교육과정 편성이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시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E교사는 적은 음악 시수로 인한 아쉬움을 제시하였으며, F교사는 그로 인해 평가 과정에서 다른 교과의 시간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이 나타나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B교사는

음악교사 간 원활하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교육과정 편성에서 음악과 미술 중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동일하게 편성되지 않은 경우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편성의 개선 방향에 있어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3학년의 음악 시수를 줄이고 2학년 음악 시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해당 사안이 음악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희망한 부분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실제 3학년의 음악 시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한정된 시수에서의 효과적인 음악 수업을 위해 2학년의 시수로 옮겨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여 운영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교과들의 편성 등 학교 내부적인 상황으로 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적용된 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 음악과 미술의 교육과정 편성이 동일하게 이루어진 경우와 음악교사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1학년의 음악 시수가 2시수 이상 편성된 점에서 적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음악교사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악과 미술 편성의 교육과정 편성이 동일하지 않고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주어질 경우 부적합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반면 부적합하였다는 의견에서는 적은 음악 시수와 그로 인한 평가의 어려움이 제시되었고, 관련하여 개선 사항으로는 3학년의 음악 시수를 줄이고 2학년의 음악 시수를 늘려 효과적인 음악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었고, 학생과 교사 모두 희망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음악 교과를 저학년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진학에 부담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하도록 보완하고자 한다. 또한 일정 부분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할 것인지, 음악과 미술 간의 교육과정 편성을 어느 정도로 나눌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보완하고자 한다.

(2) 음악 수업 학급 수의 적합성

음악 수업 학급 수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에 대해 정리한 내용은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음악 수업 학급 수의 적합성

학교	연구참여자	적용된 학급 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급 수
1	A교사	(적합함) 음악 : 미술 = 5:5	(기존과 동일) 음악 : 미술 = 5:5
	B교사	(적합함) 음악 : 미술 = 5:5	(기존과 동일) 음악 : 미술 = 5:5
2	C교사	(적합함) 음악 : 미술 = 5:5	(기존과 동일) 음악 : 미술 = 5:5
	D교사	(적합함) 음악 : 미술 = 5:5	(기존과 동일) 음악 : 미술 = 5:5
3	E교사	(적합하지 않음) 매년 변동됨	많을수록 좋음 (일정 수의 학급 보장 필요)
4	F교사	(적합하지 않음) 음악/미술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음	음악 : 미술 = 5:5

우선 학교 1과 학교 2의 경우 실제 음악과 미술의 학급 수가 동일하게 다섯 개의 반으로 진행된 음악 수업을 경험하였으며, 해당 운영 방향에 대해 적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 B교사와 C, D교사 간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두 학교 모두 내년도에는 음악 수업이 미술 수업보다 더 많은 학급으로 진행될 예정이기에 해당 문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이 언급되었다. 또한 E교사의 경우 매년 학급 수에 있어 변동이 발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학급 수가 적을 경우 다과목 지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많은 학급 수를 희망하며, 일정 수의 학급이 보장될 필요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F교사는 음악과 미술 교과의 선택으로 학급 수가 정해지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았으며, 음악 성적이 입시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에 음악 과목을 선택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음악교육의 다양한 역할과 함께 미술교육과 동등하게 교육되어야 하므로 동일한 비율로 개설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리해보면, 음악 수업의 학급 수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미술과 음악이 동일한 비율로 학급 수가 운영되는 것을 적합하다고 답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관련하여 해당 학급 수로의 운영을 경험한 학교 1과 학교 2의 연구참여자들 모두 적합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내년도의 음악 학급 수가 미술보다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교사의 경우 매년 학급 수의 변동이 생겨 적합하지 않았으며, 학급 수가 적을 경우 다과목 지도를 해야 하므로 많은 학급 수를 희망하였고, 일정 학급 수가 보장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F교사는 음악과 미술의 선택 과목에 의해 학급 수가 결정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았으며, 현 입시제도와 음악 수업 간의 상관관계가 적어 낮은 학급 수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동등하게 수업이 운영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과 마찬가지로 학급 수 역시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 입시 제도와 음악 수업 학급 수 간 병치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기에, 음악과 미술 과목의 학급 수가 동등하게 설정된 상황에서 음악 교과의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음악 수업 학급당 학생 수의 적합성

음악 수업 학급당 학생 수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정리한 내용은 <표 IV-15>와 같다.

<표 IV-15> 음악 수업 학급당 학생 수의 적합성

학교	연구 참여자	적용된 학급당 학생 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급당 학생 수
1	A교사	(적합함) 25명 (1학년)	(기존과 동일) 25명
	B교사	(적합함) 25명 (1학년)	(기존과 동일) 25명
2	C교사	(적합하지 않음) 35명 (1학년) / 33명 (2학년)	20명
	D교사	(적합하지 않음) 약 33-40명	20-25명
3	E교사	(적합하지 않음) 활동 및 교과에 따라 다름	① <음악 연주> : 20명 이하 ② <음악 감상과 비평> : 인원 수 제한 없음
4	F교사	(적합하지 않음) 조금 많은 편 그러나 (합창 수업) 많은 학생 수 필요	① 합창 수업 : 30명 ② 합창 외의 수업 : 20명 초반

우선 학교 1의 경우 실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인 수업을 경험하였으며,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A, B교사 모두 적합하였다고 인식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학급 2의 경우 C교사와 D교사 모두 현재 김포시의 학교 대부분이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음악 수업에서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학급당 학생 수로 C교사는 20명을, D교사는 20-25명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기 수업에서의 문제를 보완하며 내실화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 3의 E교사는 활동 및 교과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다르게 나타나 적합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관련하여 음악 수업에서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학급당 학생 수로 <음악 연주>의 경우 20명 이하를 희망하며,

<음악 감상과 비평>은 인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 4의 F교사는 현재 적용된 학급당 학생 수가 많아 적합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합창 수업에서는 많은 학생 수를 필요로 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음악 수업에서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학급당 학생 수로 합창 수업에서는 30명 정도를, 그 외의 수업에서는 20명 초반을 희망한다고 답변하였다.

정리해보면, 음악 수업의 학급당 학생 수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20-25명 정도로 운영되는 것을 적합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악 연주 수업 같이 20명보다 더 적은 수로 운영되는 것이, 합창 수업과 같이 30명 정도로 운영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에 교과 및 활동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운영할 필요성이 함께 제시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떠한 음악 수업을 하는지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유동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때로는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합창이나 합주와 같은 활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규모 인원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활동에 따라 학급 및 학년을 통합하여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원활하게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4) 음악 수업에 적용된 학생 배정 방식의 적합성

음악 수업에 적용된 학생 배정 방식의 적합성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A교사는 학생들의 배정 방식이 교육과정 및 학교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의 성비나 음악적 수준 차이가 나타나 수업 진행에서 어려움을 겪은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B교사는 교과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학생들의 배정이 결정되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C교사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F교사는 아직 자신의 진로·진학을 결정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음악이 필수 과목으로 운

영되어 모든 학생들이 기초 교양 과목으로써 수강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보통으로 답변한 연구참여자들도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D교사는 배정 방식에 상관없이 수업은 결국 똑같이 진행된다는 점을, E교사는 자주 경험하여 익숙해진 점을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음악 수업에 적용된 학생 배정 방식의 적합성에 있어 교육과정 및 학교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그 과정에서 교과들 간의 세력 다툼이 일어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었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음악이 필수 과목으로 운영되어 모든 학생들이 기초 교양 과목으로써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수업에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으며, 오랜 경험으로 보통으로 답변한 부분에서도 적합하다는 답변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과 미술의 선택이 아닌 음악 단일 편성을 통해 기본적으로 음악 과목의 시수를 보장하고, 음악 과목 안에서 학생들이 희망 진로·진학에 따라 자유롭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여 진정한 배움을 위한 학생 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2) 음악 선택 과목

음악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음악 선택 과목 안내의 적합성, (2) 학생들이 희망하는 음악 선택 과목의 개설 여부, (3) 고교학점제에서의 음악 선택 과목의 적합성, (4) 추가적으로 필요한 음악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과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음악 선택 과목 안내의 적합성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한 선택 과목 안내의 적합성에 있어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된 학교 2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4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음악 선택 과목 안내가 적합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A교사는 안내 영상을 제공하였음에도 학생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음악 관련 선택 과목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F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음악 교과가 도외시되며 다른 교과와는 다르게 선택 과목 안내의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시하였다.

> *선택 과목 안내가 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학교는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으세요. 그냥 열외 과목처럼 취급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 과목 자체가 개설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놓고 우리 과학중점 할 거니까 음악은 곧 자리 하나도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F교사)*

이러한 음악 선택 과목 안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B교사는 1:1 안내를 통한 충분한 안내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해를 충분히 돕는다라는 말이 전제가 되려면 교사가 학생과 1:1로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절대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제도 제가 그랬는데 지금 아이들이 3차 과목 선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략)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한 반 당 33명, 34명 이렇게 들어오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조금은 아이들에게 너희의 진로와 연계해서 가야 한다라는 거를 반마다 들어가면서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한 명한테 딱 얘기했는데 그 한 명이 "쌤 그런 말을 했었어요?"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거를 수업시간에 진짜 여러 번 얘기했고 어제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안내가 이해를 돕기에 충분하지 못해 못해요. 이유는 1:1이 아니기 때문에.(B교사)*

정리해보면, 답변을 제공한 모든 연구참여자들이 음악 선택 과목 관련 안내가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식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안내 시간이 부족하며, 학생들의 영상 시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음악 교과를 도외시하여 안내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1:1 안내를 통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단체 영상 시청을 통해 과목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해당 과목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과목의 선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개별적인 과목 이해를 위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이 예상되므로 해당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을 함께 제안하고자 한다.

(2) 학생들이 희망하는 음악 선택 과목의 개설 여부

학생들이 희망하는 음악 선택 과목의 개설 여부에 있어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된 학교 2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련하여 4명의 연구참여자 모두 음악 선택 과목이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이 아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A교사는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전통적인 과목 편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또한 B교사는 현재 편성·운영되는 음악 선택 과목을 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문제와, 종류가 부족한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E교사는 전문 교과 과목들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와 F교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음악에서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과목이 없는 문제에 대해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음악 선택 과목의 개설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편성·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과목들에 머물러 있고, 교사의 지도가 어려운 문제와 종류가 많지 않아 희망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며, 기본적으로 음악 선택 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선택이 되도록 음악 선택 과목에 있어 학생들의 희망 과목을 반영하며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다양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는 과목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사 재교육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3) 고교학점제에서의 음악 선택 과목의 적합성

고교학점제에서의 음악 선택 과목의 적합성에 있어 연구참여자 간 다양하게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에 있어 A교사는 기본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맞지

않는 과목이며 학생들의 수준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과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적합하였다는 의견에 있어 C교사는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알맞게 해당 과목의 수강을 통해 진로·진학에 도움을 얻게 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적합성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B교사와 D교사는는 도입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D교사는 교과협의회에서 예술 과목이 배제되는 점과,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주지 않은 점을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고교학점제에서의 음악 선택 과목의 적합성에 대해 연구참여자들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적합하지 않았다는 의견에서는 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을 고려한 과목이 아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적합하였다는 의견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진로·진학에 도움을 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한 부분이 나타났다. 또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관련하여 도외시되는 음악 교과의 상황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예술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된 전문교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에 맞도록 과목을 개편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음악 선택 과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제도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추가적으로 필요한 음악 선택 과목

연구참여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음악 선택 과목은 <표 IV-16>과 같다.

<표 Ⅳ-16> 연구참여자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음악 선택 과목

학교	연구참여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음악 선택 과목
1	A교사	최신 경향을 반영한 과목
	B교사	(2022 음악과 교육과정 관련) <음악과 직업> → <음악과 산업>으로
2	C교사	전문교과 中 <시창・청음>, <음악이론>
	D교사	전문교과 中 <시창・청음>
3	E교사	(2022 음악과 교육과정 관련) <음악과 미디어> + 융합 교과
4	F교사	<합창>, <합주>

관련하여 A교사는 현재 편성・운영되는 진로선택 과목이 학생들에게 부적합하며, 최신의 경향을 반영한 과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B교사는 2022 음악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개설 예정된 <음악과 직업>을 <음악과 산업>으로 변경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과 관련시켜 산업적인 구조로 제시하여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C교사와 D교사 모두 전문교과에 대한 개설을 희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시창・청음> 과목을 희망하였고, 추가적으로 C교사는 화성학 수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관련하여 D교사는 실제로 전문교과에 대한 학습을 다른 음악 수업 시간에서 일부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사례를 제시하였다.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목은 음악 연주도 있겠지만 전문 교과들 있잖아요. 시창청음은 이런 거 애들이 좋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문 교과를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수업시간에도 그냥 청음 같은 거는 할 때가 있거든요. 애들이 절대 음감 자기네들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즐거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전문 교과도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가지고 수업을 도입을 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D교사)

또한 E교사는 2022 음악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개설 예정된 <음악과 미디어>를 적합하다 보았으며, 추가적으로 융합 교과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F교사는 <합창>, <합주>와 같은 음악만이 특징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과목이 필요하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관련하여 실제 진학 과정에서 오케스트라 활동 경험이 도움을 주었던 사례에 대해 제시하였다.

차라리 합창이나 합주 같은 그런 음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개설을 해서 그게 학교별로 퍼져야 저희 교과의 존재의 가치나 의미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체육대회를 하면 열광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오케스트라도 방과후로만 치부하는 게 아니라 고교학점제에서 학교 간 서로 넘나드는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중략) 저희 학교는 의대 가는 친구들이 오케스트라 했던 경험을 입시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도움을 주려면 음악 교과에서 그런 걸 오히려 개설을 하는 게.(F교사)

이를 정리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최신 경향을 반영하며 2022 음악과 교육과정과 관련된 음악 선택 과목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음악과 산업>, <음악과 미디어>, 전문교과인 <시창・청음>, <음악이론(화성학)>, <합창>, <합주>로 학교・교사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 1에서는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과목의 필요성을, 학교 2에서는 현재 개설된 전문교과에 대한 개설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같은 학교 교사 간 의견이 부합하는 부분이 나타났으며, 2022 음악과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긍정적으로 보는 일정 과목들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었다. 또한 고교학점제에서도 추구하는 융합 교과와 함께 음악 교과만이 줄 수 있는 경험인 <합창>, <합주> 같은 전통적인

교과목에 대한 수요도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과목만 편성·운영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희망과 교육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함께 편성·운영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교사별로 희망 과목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개별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가 자율적으로 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2022 교육과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음악 선택 과목의 진보적인 변화가 기대되기에, 적용 이후에 과목의 적합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음악교사의 교수 역량

음악교사의 교수 역량과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필요한 교수 역량의 변화, (2) 다과목 지도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과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필요한 교수 역량의 변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필요한 교수 역량의 변화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표 IV-17>과 같다.

<표 IV-17>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필요한 교수 역량의 변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필요한 교수 역량의 변화	연구참여자
1. 수업 연구 및 교과 재구성	B교사, F교사, E교사
2. 교사 재교육 및 다양한 음악에 대한 지도	B교사, C교사
3. 다과목 지도 및 교과 융합	F교사
4. 진로・진학 지원	D교사
5.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지도	E교사
6. 음악에 대한 흥미 제공 및 학생의 삶과 연계	D교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필요한 교수 역량의 변화에 있어 첫 번째로 수업 연구 및 교과 재구성 역량이 제시되었다.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는 교사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이며, 고교학점제의 선도학교 지정 이후 교육과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난 만큼 많은 음악교사들이 필요한 교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교사 재교육 및 다양한 음악에 대한 지도 역량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B교사

와 C교사는 음악 연주 수업에서의 다양한 악기에 대한 연주 및 지도의 필요성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로는 다과목 지도 및 교과 융합 역량이 제시되었다. 특히 다과목 지도의 경우 고교학점제의 주요 문제로 제시되는 교원 수급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음악교사 역시 해당 역량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F교사는 교과 융합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AI 및 과학기술과 음악 간의 융합에 대해 제안하였다. 네 번째로는 진로·진학 지원 역량이 제시되었다. 특히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진학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기에 해당 부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관련하여 D교사도 필요한 교수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지도하는 역량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E교사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저마다 다른 음악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음악적 수준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여섯 번째로는 음악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D교사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는 음악 교과의 본질적인 목적임을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필요한 교수 역량의 변화에 있어 수업 연구 및 교과 재구성 역량, 교사 재교육 및 다양한 음악에 대한 지도 역량, 다과목 지도 및 교과 융합 역량, 진로·진학 지원 역량, 학생들의 음악적 수준 차이를 고려하여 지도하는 역량, 음악에 대한 흥미를 제공하고 학생의 삶과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와 특성적인 면과 연계된 내용과 함께 도입 이전의 음악 교과만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도 음악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 재교육 등의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과 함께 교사 개인에게 있어서도 끊임없는 수업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다과목 지도

앞서 고교학점제의 주요 문제로 교원 수급 문제가 존재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한정된 교원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지원하고자 한 명의 교사가 자신의 전공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지도하는 다과목 지도가 제시되었으며, 관련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과목 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었다. 이는 전공인 음악 과목과 관련해서도 본질적으로 가지게 되는 문제이며, 구체적으로 A교사와 B교사는 학습 책임에 대한 부담과 평가 문제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다과목 지도 자체의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관련하여 D교사는 단순히 시수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장의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교사에게 다과목 지도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졌는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관련하여 E교사는 교사에게 선택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 다과목 지도가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반면, F교사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다과목 지도에 대해 교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교사의 죄책감으로 이어져 많은 교사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고자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정리해보면, 다과목 지도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며, 관련하여 교사의 전문성,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과목 지도에 대한 교사 선택권과 관련하여 주어질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교사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게 되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되었기에 다과목 지도에 대한 교사 선택권이

주어져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다과목 지도에 있어 교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효과적으로 다과목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및 교육청 차원에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4) 교사의 업무 부담

교사의 업무 부담과 관련하여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는 답변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A교사는 교과 수업에 대한 업무 과중을. E교사는 행정 처리나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제시하였다. 또한 E교사는 교사의 이동 문제에 있어 학교마다 고교학점제가 다르게 운영되기에 새롭게 업무를 익히는 과정이 반복되며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B교사는 음악교사와 담임 업무를 함께 할 경우 학생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있으며, 관련하여 이동 수업 중 학생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선정 이후 교사의 업무 부담에 변화가 없었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C·D·F교사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에도 변화없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운영되어 업무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F교사는 비교적 초기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안정된 상황에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후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었으며, 관련하여 교과 수업, 행정 처리, 각종 회의 등으로 인한 업무 과중과 학생 관리에 대한 책임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부담이 없었다는 의견으로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지정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었던 점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업무가 동일하게 진행되었던 것에 대한 답변이므로 실질적으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의 업무를 경험한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모두 업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전면 도입된다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관련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함께 행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이동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학생 관리의 책임 문제를 교사에게 오롯이 전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학생 관리 방안이 설정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5)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

고교학점제에 대한 음악교사의 인식과 관련하여 면담의 세부 질문을 (1) 선도학교 경험 이후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2) 음악과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보완 사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적합성과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고찰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도학교 경험 이후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선도학교 경험 이후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에 있어, 도입 취지와 관련하여 일부 고교학점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답변이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점과 희망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느꼈으며, 내실있게 운영될 경우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외의 답변에서 연구참여자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관련하여 '입시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A교사와 B교사는 음악의 경우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에 학점제로 도입되기에 한계가 존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착되지 않은 제도로 인한 혼란'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D교사는 선도학교 지정 이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E교사는 학습 상황은 비슷하나 학생 및 지도 과목의 수가 유동적이며 혼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 관리' 면에서의 교사의 책임과 부담감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F교사는 학교 내에서 실제 담임 업무로 인해 학생 관리에서 문제가 일어난 사례를 제시하였다.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u>과목이 마구잡이로 편성</u>이 되어있다 보

니까 담임인데 우리 반 애를 안 가르치는 상황이 있어서 이게 되게 큰 문제가 있었어요. (중략) 담임인데 우리 반 애를 안 가르치다 보니까 래포 형성이 안 되고 애 얼굴을 심지어 못 알아봐서 눈앞에서 (중략) 청소를 도망가는데 개가 개라는 걸 놓치신 거죠. (중략)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담임에 대한 문제도 되게 커지는데 (중략) 그러기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미성숙하다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는 상황은 관리 면에서는 교사에게 되게 큰 부담이 있어요. 그렇다고 학교가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지는 않아서 또 다른 장치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담임 입장에서 애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애가 하루 종일 옮기니까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우리 반인데 어디 가 있는지를 못 찾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부정적인 상태고요.(F교사)

또한 '교사 간 다툼'을 유발한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D교사는 학교 내에서 교원 수급과 관련하여 다툼이 일어난 사례를 제시하였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교사 티오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해서 싸움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중략) 조금 안 좋은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서로 배려하면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D교사)

정리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선도학교 경험 이후 도입 취지에 있어서는 일부 긍정적이라 인식하였지만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입시제도와의 연계, 정착되지 않은 제도로 인한 혼란, 학생 관리 면에서의 교사의 책임과 부담감, 교사 간의 다툼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학 입시제도와 음악 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된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체계적인 학생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음악과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

음악과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사항에 있어 연구참여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표 IV-18>과 같다.

<표 IV-18> 음악과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

음악과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보완사항	연구참여자
1. 대학 입시와의 연계 고려	A교사, B교사, C교사
2,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	B교사, C교사
3. 음악교사의 전문성 증진	C교사, F교사
4.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이해를 위한 교육 제공	E교사
5. 교사에게 선택권을 제공	D교사

첫 번째로, 음악과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보완 사항으로는 '대학 입시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학생들의 인식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도외시되는 음악과의 상황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A교사와 B교사는 진학 시 음악 교과의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학생과 교사 모두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학교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련하여 A교사와 F교사는 음악 교과의 방향성에 있어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과 진학에 도움을 주는 방향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F교사는 음악 교과를 수강함으로써 학생들이 얻게 되는 교육적 효과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는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C교사는 다과목 지도에 대한 능력을 함양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F교사는 기존의 교육 방식

만을 고집하는 교사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로는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이해를 위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E교사는 교사마다 고교학점제를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며,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섯 번째로는 '교사에게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D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선택권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정리해보면, 음악과의 성공적인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보완 사항으로 대학입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학교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음악교사의 전문성 증진시키고, 고교학점제의 제도적 이해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교사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에 있어 음악 교과의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하는 문제에서는 음악교사들 간의 협의가, 음악교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문제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제시된 보완 사항들은 교사 개인의 노력보다는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지기에 해당 사안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경기도 지역 선도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음악교사들이 인식하는 제도의 적합성과 보완사항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해당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 및 문헌들과 함께 비교·분석한 내용과 함께 정리해보며 개선 방안을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도입의 과도기인 고교학점제의 현황에 따라 교육과정상의 여러 변화가 나타나며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존재하였다. 비록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음악 수업에서 제도와의 연계성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선도학교 지정 이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교육과정의 편성이 유동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에서 혼란을 느끼는 등 고교학점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도기 단계에서의 혼란은 중학교급에서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유학기제의 도입단계에서도 나타난 문제였으며, 고교학점제 역시 동일한 문제가 나타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가 안정된 정착을 이룬 것과 함께 연구참여자들의 면담 결과를 통해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기대되는 부분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의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보인다.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첫 번째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제도 및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교사에게 있어 기존의 선택 사항으로 제공되었던 교육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가 나타났고,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 부족의 문제로 이어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관련 안내 프로그램을 필수 교육으로 지원함으로써 제도 및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면담 결과 대부분 학생들에게 있어 제도 및 선택 과목 안내가 단체로 영상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에 불충분하였다고 주장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가 개인 상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제도 및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두 번째로는 교사 재교육을 지원하며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의 도입으로 다과목 지도나 융합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교과만을 교육해 온 교사들에게 관련 재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세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에 따라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학에서의 학점제 시스템과 동일하게 학생들 스스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면담 결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공강 시간과 수업 시간에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다면 결국 책임의 소재가 교사에게 돌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출석과 학업 이수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책임 문제가 개별 담임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보다 세부적인 학생 관리 방안이 마련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길 기대한다.

둘째, 음악 교과와 대학 입시 제도와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의 음악 성적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음악 교과를 경시하는 문제는 기존의 다양한 사례 조사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도 면담 결과를 통해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음악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음악 성적이 학생들의 진로 및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음악 교과를 경시하며 수업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교학점제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진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만큼 대학 입시 제도와의 연계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음악 교과의 연계 방안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첫 번째로는 대학 입시 제도를 전 과목의 성적을 모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함으로써 음악 교과의 성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두 번째로는 예체능 관련 과목들을 다른 교과 관련 과목들과 별개의 평가 항목으로 만들어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가지의 방안들을 통해 대학 입시 제도에서 음악 교과의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음악 교과를 경시하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교과 간의 차별 없이 학생들에게 음악이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되며 보다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입시에 반영되는 과목이 늘어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면담 결과 음악 선택 과목에 있어 학생들은 연주 관련 과목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음악 감상과 비평>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학생들에게 과목선택권을 부여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수요도 역시 적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해당 과목에 대해 '감상과 비평'만으로는 한 학기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우며, '연주'와 함께 해당 과목이 이루어졌을 때 더 효과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또한 '교과서'의 구성이 적합하지 않게 이루어져 교과서 없이 교사의 자체적인 자료로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재구성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첫 번째로는 <음악 감상과 비평>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감상과 비평 활동

에 ‘연주 활동’을 추가하여 진행하였으며,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제시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미디어로 제시되는 연주보다 직접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며 서로의 연주를 감상한 경우 더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졌음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평’이라는 단어 자체를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과목 선택에도 영향을 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과목명은 <음악 연주와 감상>으로 제시하되 관련하여 비평 활동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의 선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교과서의 재구성’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이 교과서가 많은 줄글과 설명식 구성으로 이루어져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글자의 수를 줄이며 가독성을 높이고 음악 교과의 특성에 맞는 실음 중심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제시하는 방안으로 재구성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음악 시수를 조정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면담 결과 연구참여자들 모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업적인 부담이 늘어나기에 음악 교과가 비교적 저학년에 개설되는 것을 희망하며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 교과의 이수 권장 및 가능 시기를 1학년 1학기-2학년 2학기로 설정하며 학교 상황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적인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음악 교과를 즐길 수 있도록 기대한다.

넷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진학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인 만큼 과목 선택권에 대한 보장이 곧 제도에 대한 실효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면담 결과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과목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 선택으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의 문제로 동료교사 간 다툼이 벌어지는 심각한 현장의 상황이 존재하였다. 또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는 만큼 결국 학생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사의 정원이 줄어들게 되고, 음악 교과의 존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도입 취지에 따라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되, 어느 정도까지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학교 및 교육청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 첫 번째로는 음악 교과 단일 편성으로 시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면담 결과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중 선택하여 운영할 경우 교사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며 해당 교과의 존폐와도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악 교과와 미술 교과 모두 단일의 교과 편성으로 인정하여 시수를 부여하고, 음악 선택 과목 안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교과 뿐만 아니라 동일한 교과 교사 간에도 학생 배정 등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의 도입 취지에 따라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원만한 합의를 위한 교사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기존에 미비하게 이루어진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의 사례조사 및 교사인식에 대한 교육현장의 직접적인 경험이 담긴 연구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관련하여 제시된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어려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음악교사들이 인식하는 적합성과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전면 도입 이전에 제도적인 보완점을 탐색해본 점에서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설정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상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고, 단위제 바탕의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점제에 도입된 사례를 조사한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로써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보다 넓은 지역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학교의 사례들을 조사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관련하여 면담을 통해 각 지역별로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상이하며, 학교마다 중점을 두는 교육의 계열이 다른 부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 및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경우를 연구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한 학교 현장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함으로써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연구대상에 있어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의 인식조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해당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교육의 주체이며,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관련하여 학생들이 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장점, 그리고 보완점과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현재의 단위제 바탕의 2015 개정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의 사례조사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본 논문의 경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상황이기에 기존의 단위제 바탕의 2015 교육과정을 적용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과정의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학점제 시스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실제 학교에 적용된 사례를 보는 것도 전면 도입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에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음악과에 있어 고교학점제에 대한 연구의 수 자체가 적은 만큼 관련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제시되는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며, 안정적인 제도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를 제안한다.

본 논문과 후속연구로 제안한 연구들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2023년 단계적 도입과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가질 것이다. 관련하여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탐색하며 고교학점제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하여, 성공적으로 음악과의 고교학점제가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곽건우(2021). 직업계고 미용학과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도입 사례 분석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곽나리(2022). 고교학점제 음악 교과 교육과정에 관한 교사 인식 조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교시 제 1997-15호 [별책 4].

교육부(2011).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12].

교육부(2015a).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4].

교육부(2015b).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2].

교육부(2015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

교육부(2021a).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21b).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안).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21c).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21d). 포용과 성장의 고교교육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22a).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2022b).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교육부(2022c).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별책 1].

김도훈(2020). 학생선택 진로별 교육과정 운영방안에 대한 사례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동일(2004). **교육평가용어사전.** 학지사.

김아현(2019). 국악 활동을 통한 진로교육의 방향 탐색. **국악교육연구, 13**(2), 37-70.

민경훈 외 11인(2010). **음악교육학 총론.** 학지사.

박지은(2018). 일반 고등학교 및 외국인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비교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지현(2019).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의 OECD Education 2030 역량 반영도 분 석. **음악교육연구, 48**(4), 161-180.

박지현・김지현(2021). 고교학점제에 따른 음악과 교육과정 선택 과목 구성 및 운영방안. **예술교육연구, 19**(2), 133-151.

박하영 외 3인(2022). 디지털 파도 앞에 선 중고령자: 중고령자 집단 내 디지털 격차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노년학, 42**(5), 915-935.

박휴용(2013). **초보 연구자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백순근(2018).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과학사.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2022). **2022학년도 서울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선택 과목 안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2022). **2023학년도 입학생을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신은비(2019). 자유학기제 음악 선택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현황 및 교사인식조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성호(2018). 소득분배 지표를 이용한 OECD 국가의 양극화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우옥희(2019). 고교학점제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준 개발.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기웅 외 3인(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스토리.

유진주(2021). 고교학점제 「음악 이론」 수업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인아(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연구학교 사례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명선 외 8인(2018). **질적연구 수행하기.** 수문사.

이명준(2010). 디지털 세대의 미래 교육 근거로써 배움의 지향성. **배움학연구, 2**(1), 13-26.

이상오(202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 교육 방안.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수진 외(2022).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선택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탐색. **미래음악교육연구, 7**(2), 107-133.

이영미(2021). 핀란드 고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핵심내용과 교과목의 특징이 한국 고교학점제에 주는 시사점. **문화예술교육연구, 16**(5), 153-185.

이영미(2022).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음악선택교과목 편제 국제 비교 연구 : 캐나다, 호주, 미국, 핀란드를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20**(2), 27-56.

이윤선(2018). 미술중점학교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유정(2019). 고교학점제 요인분석과 사례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은정(2021). 고교학점제에 따른 지역중심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연구. **한국초등교육, 32**(4), 17-32.

장수아(2022).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한 고등학교 1학년 음악 진로 수업 지도안.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성희(2017). 서울 경기 지역 중등음악교사의 발성지도 현황 및 인식 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은정(2018). 학교 예술교육 정책 변화에 따른 국악교육의 방향. **국악교육연구, 12**(2), 203-226.

정은정(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국악교육의 선택권 강화와 내실화 방안. **국악교육연구, 14**(1), 213-240.

최민지(2020). 경기도 인문계 고등학교 음악 평가현황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영철(2019). 고등학교 교사의 교과교실제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지혜(2022). 음악비평 수업에 대한 중등 음악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교육청(2009).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추진 계획(안). 충청북도교육청 보도자료.

통계청(2021). 장래인구추계(2020_2070년). 통계청 보도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20). **고등학교 학생평가 톺아보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해수(2022).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음악수업지도안.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성무(2019). 교과교실제를 통한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실행 가능성 분석.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주 외(2020).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원수급 관련 쟁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651-672.

경기고교학점제(n.d.). 접속일 2022.11.29.
https://more.goe.go.kr/hagjeomje/index.do

경상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n.d.). 접속일 2022.11.30.
http://www.kb21.org/index.php?gt=info/info01

고교학점제(n.d.). 접속일 2022.12.06.
https://www.hscredit.kr/mng/spaceCrat.do

교육부 TV. (2020년 4월 20일). 상상력을 현실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점학교란?[동영상].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GYAiiucQ9nc

교육부 TV. (2020년 5월 12일). 예술드림거점학교 들어봤어?[동영상].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mq0PwgBtbr0&t=60s

언양초등학교(n.d.). 접속일 2022.11.30. https://school.use.go.kr/eonyang-e/M0112/

운암고등학교(n.d.). 접속일 2022.11.30. https://unam.hs.kr/doc.view?mcode=101510&cate=101510

유네스코학교네트워크(n.d.). 접속일 2022.11.30. https://asp.unesco.or.kr/%ec%97%b0%ed%98%81/

정은수(2021). 교원 수급 방안 빠진 고교학점제 계획. 한국교육신문, 2021.02.19. https://hangyo.com/mobile/article.html?no=93227.

충주고등학교(n.d.). 접속일 2022.11.29. https://school.cbe.go.kr/chungju-h/M0109/

e-학교알리미(n.d.). 접속일 2022.11.30. https://www.ealimi.com/Promotion#

STEAM교육(n.d.). 접속일 2022.11.30. https://steam.kofac.re.kr/?page_id=11267

[부 록]

FGI(Focus Group Interview) 면담 질문지[4)]

안녕하십니까.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면담에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면담은 **【음악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를 중심으로】**를 위해 진행됩니다. 해당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음악과에서의 효과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는 면에서 교육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관련된 연구자료들은 연구를 위해서만 수집되며, 연구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고, 자료 수집 시 반드시 익명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외부로의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평소에 생각하시는 고교학점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편안한 마음으로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10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윤혜원 올림

(면담 예상 시간 : 총 2회 (1회당 약 1시간 30분 ~ 2시간))

해당 면담지 1부를 진행 시간에 따라 2회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해당 면담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 (석사과정) 윤혜원 (010-****-****)

이메일: ****@******.com

■ 기본 정보

① 근무 지역 : ( )

② 성별 : □ 남 □ 여

③ 나이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④ 세부 전공 : ( )

⑤ 학력 : □ 사범대학 졸업 □ 일반대학 졸업(교직이수) □ 대학원(석사과정) 졸업
□ 대학원(박사과정) 졸업

⑥ 교직 경력 : □ 5년 미만 □ 5-10년 □ 10-15년 □ 15-20년 □ 20년 이상

⑦ 근무지 설립 구분 □ 사립 □ 공립 □ 국립

⑧ 학교 특성 : ( )

---

4) FGI (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면접) :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문제점을 확인해 제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연구 주제에 적합한 연구 집단을 모집•설정해 연구 주제와 관련해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질적연구방법입니다(김동일, 2004).

■ 면담 질문지

1. 경기도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분석

1-1) 고교학점제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

(**수강하신 프로그램**에 따라 **'<표 1> 1-1)의 세부 면담'**이 진행됩니다.)

1-1-1)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교원 연수 프로그램** 중 선생님께서 **수강하신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관련 유형: 제도적 이해 / 교육과정 개발 및 개선 / 진로 교육 / 대학 진학 다과목 지도 / 전공 심화 과목 지도 / 타 전공과의 연계 / 평가 / 미이수 학생 등)

<표 1> 1-1)의 세부 면담

질문 내용
•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은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까?
•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프로그램에 대해 경험하신 **장점**은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에 대해 경험하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추가적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2)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된 프로그램**에 따라 **'<표 2> 1-2)의 세부 면담'**이 진행됩니다.)

1-2-1) **지역 사회 연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근무하신 학교에서 운영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ex. 온/오프라인 공동 교육과정 cluster, 지역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역 기관 및 단체 연계 프로그램 등)

<표 2> 1-2)의 세부 면담

질문 내용
• 해당 프로그램의 **홍보**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 해당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목**을 반영해 개설되었습니까?
•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학**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교사와의 소통상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프로그램의 **성적 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해당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추가적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3) 경기도 지역 학교의 특색 프로그램

(1-3-1)과 1-3-2)의 **운영된 프로그램**에 따라 **'<표 3> 1-3)의 세부 면담'**이 진행됩니다.)

1-3-1)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 운영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3-2) **음악과 관련**하여 운영된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표 3> 1-3)의 세부 면담

질문 내용
• 해당 프로그램의 **홍보**는 잘 이루어졌습니까?
•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이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까?
•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로**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학**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프로그램에 대해 경험하신 **장점**은 무엇입니까?
• 프로그램에 대해 경험하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추가적으로 개설되기를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3-3) 학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학교 특색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1-3-4)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2. 음악 교과의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분석

2-1) 수업 기획

2-1-1) 수업 기획 시 **가장 고려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학생 수요 / 학부모 수요 / 예산 / 교사 협의 / 기타)

2-1-2) **음악 교과의 선택 과목 안내**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1-3) 음악 교과에 있어 **학생들의 수요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1-4) 수업 기획 단계에 있어 선생님만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2-1-5) 수업 기획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2) 수업 진행

2-2-1) 교육과정 운영

2-2-1-1)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교육과정 편성(선생님께서 수업하신 음악 교과, 그에 따른 학년과 학기 및 수업시수)**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2-1-2)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각 음악 교과 수업에서의 **학급 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2-1-2) 선생님께서 수업하신 각 음악 교과 수업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2-2-1-3) **학생들의 배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2-2-2) 선택 과목

(지도하신 수업에 따라 **'<표 4> 2-2-2)의 세부 면담'**이 진행됩니다.)

2-2-2-1)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진로 선택 과목**은 무엇입니까?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

2-2-2-2)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영역 간 선택 과목(전문교과)**은 무엇입니까?
(음악 이론 / 음악사 / 시창•청음 / 음악 전공 실기 / 합창 / 합주 / 공연 실습)

<표 4> 2-2-2)의 세부 면담

질문 내용
• 수업 지도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ex. 음악적 지식 습득 / 실기 능력 향상 / 다양한 음악적 경험 수업에 대한 흥미 / 기타)**
• 해당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해당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학생들의 반응이 가장 좋았던 수업**은 무엇입니까?
• **학생들의 진로 연계 방안**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의 진학 연계 방안**에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당 수업에 대해 경험하신 **장점**은 무엇입니까?
• 해당 수업에 대해 경험하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2-3) 수업 진행 단계에 있어 선생님만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2-2-4) 수업 진행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3) 수업 평가

2-3-1) 선택 과목

(**지도하신 수업**에 따라 '**<표 5> 2-3-1)의 세부 면담**'이 진행됩니다.)

2-3-1-1)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진로 선택 과목**은 무엇입니까?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

2-3-1-2)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영역 간 선택 과목(전문교과)**은 무엇입니까?
(음악 이론 / 음악사 / 시창•청음 / 음악 전공 실기 / 합창 / 합주 / 공연 실습)

<표 5> 2-3-1)의 세부 면담

질문 내용
• 수업의 **평가**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실음지필평가 / 실기평가 / 포트폴리오평가 / 기타)
•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평가 요소**는 무엇입니까?
• 평가에 있어 **학생들의 진로**를 어떻게 반영하였습니까?
• 평가에 있어 **학생들의 진학**을 어떻게 반영하였습니까?
• **이수 / 미이수 학생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습니까?
• **미이수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ex. 보충 지도 방안)**를 어떻게 운영하였습니까?
• 해당 수업의 평가에 있어 경험하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3-3) 수업 평가 단계에 있어 선생님만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2-3-4) 수업 평가 단계에서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4) 수업 지원

2-4-1) 외부 강사 채용

(**외부 강사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표 6> 2-4-1)의 세부 면담**'이 진행됩니다.)

2-4-1-1) 음악 수업의 진행을 위한 외부 강사 채용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다면 해당 수업명도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 6> 2-4-1)의 세부 면담

질문 내용
• 강사 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강사 채용 시 경험하신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강사 채용에 있어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2-4-2) 음악 수업 환경

2-4-2-1)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음악 수업 환경(ex. 학교 시설 등)에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2-4-2-2)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경험하신 음악 수업 환경(ex. 학교 시설 등)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4-2-3) 음악 수업 환경(학교 시설 등) 변화를 위한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2-4-3) 음악 교과의 교육과정 선택을 위해 학교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2-4-4)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 **음악 교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에서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2-5) 교사의 인식

2-5-1) 수업 기획

2-5-1-1) **음악 교과의 선택 과목 안내**가
학생들의 과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2-5-1-2) 고교학점제 음악 선택 교육과정 수업에 있어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음악 과목들이 개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2-5-1-3) **수업 기획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완 사항**은
무엇입니까?

2-5-2) 수업 진행

관련 유형	질문 내용
2-5-2-1) 교육과정 운영	• 적용된 음악 교과의 **교육과정 편성(학년, 학기 및 수업시수)**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진행된 음악 교과의 **학급 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진행된 음악 교과의 **학급당 학생 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적용된 **학생들의 배정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2-5-2-2) 선택 과목[5]	• **해당 과목이 고교학점제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과 이후의 **가장 인상깊게 변화된 수업의 모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필요한 교수역량**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진로**에 도움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진학**에 도움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5-2-3) 다과목 지도	• 다과목 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긍정/부정)**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다과목 지도와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지도하실 수 있는 과목**은 무엇입니까?
2-5-2-4) 기타	• **수업 진행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완 사항**은 무엇입니까?

2-5-3) 수업 평가

관련 유형	질문 내용
2-5-3-1) 선택 과목[6]	• 해당 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진학에 공정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이수 / 미이수 학생에 대한 기준**이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 **미이수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ex. 보충 지도 방안)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5-3-2)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점 이수 과정 및 졸업에 대한 기준**이 적합하게 설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2-5-3-3) **수업 평가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완 사항**은 무엇입니까?

2-5-4) 수업 지원

2-5-4-1) **외부 강사 채용**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완 사항**은 무엇입니까?

2-5-4-2) **음악 수업 환경**(ex. 학교 시설, 도구 및 기자재)에 있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완 사항**은 무엇입니까?

2-5-4-3) **수업 지원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보완 사항**은 무엇입니까?

2-5-5) 기타

2-5-5-1)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교사의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2-5-5-2) 수업을 경험하신 이전과 이후의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긍정 / 부정)**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십시오.

2-5-5-3) **음악 교과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무엇입니까?

---

5) **진로 선택 과목**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과 영역 간 선택 과목(전문교과)** (음악 이론 / 음악사 / 시창•청음 / 음악 전공 실기 / 합창 / 합주 / 공연 실습) **중 지도하신 수업**에 따라 면담이 진행됩니다.

6) **진로 선택 과목** (음악 연주 / 음악 감상과 비평)**과 영역 간 선택 과목(전문교과)** (음악 이론 / 음악사 / 시창•청음 / 음악 전공 실기 / 합창 / 합주 / 공연 실습) **중 지도하신 수업**에 따라 면담이 진행됩니다.

Abstract

A Case Study on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Music Department

: Focused on Leading Schools in Gyeonggi Area

Hye Won Yu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Music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llows students to design their own curriculum based on their interests and career plans. This study conducted FGI interviews with six music teachers who worked for a year or longer at leading school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music department and assess how the system is perceived by music teachers, so as to derive measures for improvement.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mplement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has caused some confusion because it is still in a period of transition and brings many changes to existing policies. This study proposed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ystem and subject selection, enhance professionalism of teachers, develop measures for systematic student management, and expand support in consideration of feedback from teachers.

Second,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the music curriculum and university entrance exam. Two measures were proposed to reflect high school music grades in university admissions.

Third, there is a need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d directions for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and textbooks related to the Music Appreciation and Criticism subject, recommendation of subject completion, and adjustment of possible completion period.

Fourth, subject selection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while respecting students' right to choose their own subjects. The proposed measures were to assign credit hours solely to music subjects, grant student autonomy within the scope of music electives, and for teachers to exert efforts to provide related consultat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investigating leading school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assessing the actual experiences and perceptions of music teachers. Wit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being phased in in 2023 and fully

implemented in 2025,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encourage follow-up research and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music department.

Keywords : High school credit system,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he music department, Elective music subject, Leading schools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2015 Revised national music curriculum

Student Number : 2021-29243